

연구보고 2017-18



KIC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 성격에 부응하는 누리과정 운영 개선 방안

박창현 이경화 이민희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7-18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 성격에 부응하는 누리과정 운영 개선 방안

박창현 이경화 이민희

머 리 말

최근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다. 1969년 1차 유치원 교육과정 시행부터 지금의 누리과정까지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은 유아의 학습과 발달, 삶과 놀이 등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왔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미래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알맞은 교육과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제 반세기 동안 실행되어왔던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을 면밀히 되돌아보고,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유아의 자유놀이가 살아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문제점을 교육과정의 성격, 운영, 평가의 측면에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유아교육과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교육부, 보건복지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열정과 진정성을 담아 자문단으로 참여하여 발제해주시고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연합회 대표 선생님들, 교육부 장학관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정책 방향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7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6
3. 연구과정	16
4. 선행연구	18
II.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문제점 진단	21
1. 성격	21
2. 운영	32
3. 평가	45
III.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개선방향	53
1. 성격	53
2. 운영	59
3. 평가	64
IV. 결론 및 제언	68
1. 정책방향	68
2. 정책제언	70
참고문헌	85
부록	91

표 차례

〈표 I-3-1〉 전문가 포럼 개최 일정과 내용	16
〈표 I-4-1〉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운영 다양화 방안 연구결과 개요	18
〈표 II-1-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내용 구성 현황과 계획안의 양	23
〈표 II-1-2〉 유아교육과정의 복잡한 구성체계	26
〈표 II-2-1〉 사례 1. ‘나뭇잎을 꾸며요’(동식물과 자연 만3세)	38
〈표 III-1-1〉 누리과정의 새로운 구성체계 예시	57
〈표 III-2-1〉 최소단위, 블록단위 일일계획안 예시	62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영유아기의 지적·사회적 발달과 변화하는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인 영유아가 보다 행복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의 변화를 모색해야할 시점임.
- 기관운영과 교사의 학급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은 현장에서의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에 달려있음(OECD, 2012).
 - 교육과정의 실행 양상 또는 수준이 높아지면 현장의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유아의 성장과 발달 및 학습의 효과가 높아짐(권낙원, 추광재, 박승렬, 2006; 박창현, 박찬옥, 2012).
- 누리과정 정책이 도입되고 현장에서는 유아교육과정 정책이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의 성격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 특히 누리예산 문제, 유보통합 문제 등으로 교육과정 정책은 주목받지 못했고, 운영과 평가의 측면에서 획일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여러 비판적 연구들이 제시되었음(박창현, 양미선, 조혜주, 2016; 이진화, 박창현, 윤지연, 2015).
 - 누리과정 자체요인(고시문과 지도서 등)과 운영형태 및 평가의 방식이 과형식화되고, 통제와 규제 위주의 운영 탓에 전국의 유아교육과정 운영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됨(김희연, 2017, 박창현, 2017, 이경화, 2017, 2016, 정선아, 2017b).
 - 누리과정의 운영 기제가 위에서 아래로(top-down) 방식, 충실도의 관점이 보다 강조될 때, 영유아의 흥미와 경험, 가정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과정의 실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 등도 제기되었음(정선아, 2014)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의 역량은 단위 기관의 운영 자율성, 단위 학급 교사의 운영 자율성으로 강화될 수 있으며, 교육의 역량은 곧 유아의 역량 강화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김희연, 2017; 나정, 2017; 정선아, 2017b; 박창현, 2017)
-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이미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유아교육과정 내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 분권화, 자율화의 의미를 구현해 왔음.
- 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1969. 2. 19. 문교부령 제 207 호)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도록, 그리고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할 것을 이미 규정하고 있음(문교부, 1969).
- 유아교육 및 보육과정 자율화·다양화란 단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화된 양질의 교육·보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기관의 특색을 살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을 만들어 유아에게 유의미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함.
-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의 성격에 부합하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김은주, 2017; 박창현, 양미선, 2017; 임재택, 2017)
- 특히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이 지니는 성격과 운영, 평가의 측면에서 정확한 문제점 진단과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탈권위주의, 지역화, 분권화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비추어볼 때, 유아교육과정의 성격과 운영, 평가방식도 보다 지역화, 자율화, 다양화 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을 실질적인 자유놀이 위주로 개편하고, 단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영유아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 보육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의 성격에 부응하는 유아가 행복한 교육과정이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또한 유아교육과정 정책 혁

신안에 따른 유아교육 정책의 유기적 개편을 기대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장에서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정책의 문제점을 유아교육과정의 성격과 운영, 평가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현장에서 유아들의 자유놀이가 살아나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실천 과제를 제안하는 것임.

나. 연구내용

-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의 성격 및 문제점 진단, 해결방안 도출
 -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자체의 문제점을 진단
 - 누리과정 고시문과 지도서 개편방안을 모색하여 누리과정의 개선방안을 도출
-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의 운영 형태의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도출
 - 누리과정 운영 형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아, 교사, 유치원에서 운영의 자율성 및 다양성 침해 요소 분석
 -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유아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
-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의 평가의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도출
 - 문서중심, 계획안 중심의 유치원 평가의 문제점 진단
 - 단위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존중하고, 유아와 교사의 역동적인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가능케 하는 방안 및 전략 제안
- 종합적 정책 제언
 - 한국의 유아교육과정과 유아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국가수준의 유아교육의 성격에 부응하는 자율놀이 중심의 자율적인 유아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함.

다. 연구과정

- 문헌연구

- 유아교육과정 및 유아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분석 및 재검토
-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과정과 정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 및 보완점을 파악
- 전문가 의견조사
 -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포럼 형식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
 - (역할) 누리과정 및 유치원평가 자율화를 위한 추진과제 공동 검토, 기타 유치원교육 자율성 확대·역량 강화를 위한 안건 지속 발굴, 기존 정책의 재검토
 - (운영방식) 정책연구진과 협의 및 정기회의 추진(연구기간 내 5-8회)
 - (구성) 유치원, 어린이집,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

라. 선행연구

- 육아정책연구 보고서인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운영 다양화 방안(박창현, 양미선, 조혜주, 2016)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 빅데이터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델파이 조사, 사례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정책우선순위 정책들을 참고하였음.

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문제점 진단

- 성격
 - 교육과정 성격
 - 고시문과 교사용지도서의 모호한 성격
 - 교육과정 내용과 형식
 - 교수방법에 대한 검토 과정이 부족한 방대한 내용의 교사용지도서
 - 교육과정 구성체계
 - 5개 내용영역, 활동유형, 흥미영역, 생활주제의 복잡한 관계

○ 고시문 「총론」

- '추구하는 인간상' 누락
- <편성> '시수' 와 놀이의 충돌
- <운영> '교육계획안'과 유아 흥미 및 요구의 충돌
- <운영> '흥미영역'으로 인한 유아의 놀이공간의 교과화
- <교수·학습방법> '지식·기능·태도'와 교사 및 유아 놀이 역량 충돌
- <교수·학습방법> '능동적 상호작용'의 IRE 구조로의 의미 왜곡

□ 운영

○ 통합의 의미

- 주제중심 활동 통합 방식 제시의 이론적 근거 부족
- 통합대상의 애매성
- 생활주제를 지식으로 의미 왜곡

○ 자유놀이 중심 편성, 자유놀이 중심 교수·학습활동

- 놀이의 의미와 가치 왜곡
- 놀이를 교수·학습활동으로 간주
- 유아의 삶을 공부와 놀이로 분리

○ 계획안 중심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운영의 필수요건이 된 계획안
- 계획안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유아 경험의 동질화

○ 1일 45시간 운영의 모호성

- 교과별 시수 개념의 부적절한 적용
- 수업시수 개념 작동으로 인한 자유놀이의 가치 절하

□ 평가

○ 유아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평가

- 유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 자율권이 소외된 기관 감독 및 규제를

위한 평가로의 목적 왜곡

- 평가 준비에 소진된 교사 양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평가
- 유아교육과정을 확일화 시키는 평가지표
 - 교사중심, 교수중심 지향, 계획안 중심 교육과정 강요
 - 고시문 <편성과 운영>, 「교사용지도서」의 용어를 교육과정 조건으로 강제
- 객관화, 기계화된 외부자 중심 평가방식
 - 평가기준, 항목, 지표, 영역의 과잉구조화
 - 단일 지표체계에 의한 다양한 실제 평가
 - 다단계 연산논리에 의한 기관 등급화
 - 문서중심 평가

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개선 방향

성격

-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성격제시의 명료화
 - 유아의 자유놀이중심 교육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내용 제시
- 유아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 제시의 명료화
 - 현대사회의 성찰적 가치 반영 목적 설정 및 미래지향적 인간상 제시
- 놀이,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침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용어 삭제 및 재구성
 - 주제, 지식, 기술, 태도, 흥미영역 등 놀이를 규범화 할 수 있는 용어 삭제
- 5개 영역과 주제를 내용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 체계 제시
 - 활동과 주제를 교과화하거나 영역을 교과하는 형식의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전환

운영

- 유아의 경험이 통합되는 자유놀이 중심의 유아교육과정을 지향
 - 통합 교육과정의 성격을 유지하되, 지나치게 상세하거나 모호한 진술 삭제

- 교수·학습활동으로 전락된 놀이의 의미 복구
 - 자율적 자유놀이 운영을 명시
 - 유아교육과정 모형과 접근의 다양화 가능성 명시
 - 기관의 철학 반영, 다양한 모형과 접근이 포함된 자유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원칙으로 명시
 - 교사·계획안 중심에서 유아·자유놀이 지원 중심으로 전환
 - 교수·학습활동으로 전락된 놀이의 의미 복구
 - 교수·학습 활동으로 자유놀이 운영의 원칙만을 제안, 교사 중심의 상호작용 발문 지양
 - 교사용지도서의 양을 축소하거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 제공
 - 누리과정 세부내용 삭제, 생활주제 축소
 - 1일 45시간 누리과정 운영 시간 기술 삭제
- 평가
- 유아와 유치원을 존중하는 평가로 패러다임의 전환
 - 유아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평가로 패러다임 전환
 - 단위 유치원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보장하는 평가로 전환
 - 단위 유치원의 교육과정 철학과 신념을 존중하는 평가
 - 단위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전제하는 평가
 - 단위 유치원이 주체가 되는 간주관적 평가로 전환
 - '교육과정', '교육환경' 영역 지표의 변경 및 축소
 - 지표체계의 다양화 및 지표 선택권 보장
 - 유치원 자체 평가의 실질적 권한 보장 및 외부자 평가 권한의 최소화
 -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되는 '평가'의 정체성 정립
 - 유치원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교육을 질 개선을 위한 평가 목표 기술

4. 결론 및 제언

□ 정책방향 및 정책제언

로드맵 이미지	<div style="text-align: center;"> <p>누리과정 혁신 방안</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e0f0ff;"> <p>성격 유아의 자유놀이가 살아나고, 유치원 단위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을 정립한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ff9c4;"> <p>자유놀이 + 자치와 분권</p> <p>유아의 자유놀이가 살아나고, 교사와 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p> </div> </div> <div style="margin: 10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e0f0ff;"> <p>비전 유아의 자유놀이가 살아나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추구한다.</p> </div> <div style="margin: 10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e0f0ff;"> <p>평가 유아의 자유놀이와 유치원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한다.</p> </div> <div style="margin: 10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e0f0ff;"> <p>운영 유아의 자유놀이를 지원하는 실천중심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교원 역량을 강화한다.</p> </div> </div>		
	비전	유아의 자유놀이가 살아나는 자율적 교육과정을 추구한다.	
영역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성격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운영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평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자유놀이가 살아나고 유치원 단위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을 정립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자유놀이를 지원하는 실천중심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교원 역량을 강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자유놀이와 유치원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실 행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개정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 - 교육과정 자율권 보장 명시 ✓ 교육과정 개정안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평가 개정안 마련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준 교육과정 지침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준 유아교육 과정 운영지침서 개발 및 배포 ✓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안 마련 ✓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평가 개정안의 시범 적용 및 보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교육과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준 유아교육 과정 운영사례집 개발 및 배포 ✓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안의 법제화 ✓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유치원평가에 따른 5주기 평가 실시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은 1969년 「1차 유치원교육과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 고시되어 왔다. 국가수준 보육과정은 2007년 1월 제정된 이후, 2012년과 2013년의 두 차례 개정, 고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출발점으로 2013년 3월부터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에서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0-2세 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으로 구성된 「표준보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2015년 개정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다(교육부, 2015).

‘누리과정’이 제정 공포된 지 7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누리과정의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다(김남희, 2010; 김희연, 정선아, 오문자, 2012; 박은혜, 신은수, 조형숙, 2012; 임부연, 2015; 정지현, 2011; 최연철, 2007). 그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은 초창기 학교교육의 성격과 내용을 가지지 않은 채 춤추고 노래만 한다는 사회적 시선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의 전문가들이 놀이에 근간한 배움의 교육과정을 주창하게 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초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유아교육과정을 몇 차례 제·개정하면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협조를 받아오는 것을 의례화 하고 몇몇의 주요대학과 교수들이 독점적으로 참여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김희연, 2013).

유아교육과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보다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실행해온 내용과 방법이 유아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을 만드는 근간이 되어왔고, 초창기 유아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이 곧 현재 유아교육의 정전(cannon)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박민정, 2005; 박순경, 1997). 따라서 현재 누리과정의 성격과 구조, 내용과 방향을 점검해 본다는 것은 유아교육과정 전체의 역사적 뿌리를 재검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초창기 유아교육은 특기교육이나 기본생활습관만 가르친다는 외부 시선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교육내용과 체제를 가진 교육과정으로 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을 개진하여 왔다. 이후 유아교육과정의 재개정이 계속 되는 동안 부재된 교육내용을 계속 보충하는 누적식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점진적 비대화 과정을 가졌다. 이러한 연유로 최근 누리과정에 이르기까지 지도서의 내용은 매우 방만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내용지식보다 계열성으로 상회하고 계속성의 역전환이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이경화, 2016; 정선아, 2016a). 놀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유아기의 어린이가 초등학교 어린이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지식을 알아야 하는 현실이 되었으나 이 또한 제대로 분석되거나 심화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누리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철학적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비판적 교육학이 지적하는 구조주의와 실증주의의 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아교육과정은 구조주의와 실증주의 교육과정이 가지는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으면서 실용주의 인간주의, 인지중심주의와 구성주의 교수방법이 혼재되어 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을 만들어 왔다. 또한 학습과 놀이, 그리고 교육 내용과 방법이 전도되어 버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초창기 아래에서 위로(bottom-up)의 내용생성이 가지는 불완전함이 다시 위에서 아래로(top-down) 고착화 되면서 한 가지 모형으로 집중화 되고 권력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유아교육과정이 가지는 획일화와 권력화가 던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유아들의 놀이 즐거움을 박탈하는 것 이외에, 교육과정의 전문가로 성장해야 할 교사들이 오히려 탈숙련화(de-skilling)의 길을 걷게 하였다는 점이다(심성보, 1996). 이는 유아교사양성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이 놀이가 중심이 된 유아교육과정을 진정성 있게 배우지 못하고, 이미 구조화되고 방만한 지도성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교사양성교육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충분한 현장실습을 거치지 않은 초임교사들과 ‘공립유치원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을 위해 자세하고 방대하게 구조화된 내용지식과 교수방법을 제공하는데 주력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유보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현재 누리과정은 그동안 유아교육과정이 가지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정치쟁점화 되어 있다.

또한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현재 누리과정) 적용을 위해 정부는 1979년 처음

으로 교사용 지도서를 모든 유치원에 공급하였고, 지도서의 공급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교사용 지도서는 단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은 동일한 생활주제 및 교육내용이 획일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교사용 지도서를 통한 누리과정의 현장 운영 형태는 단위 유치원의 특수성, 고유성을 퇴색시키고,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침해되고,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기관은 일부 기관으로 국한되어 가고 있다.

또한 획일적 누리과정 운영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사를 교육과정의 ‘사용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교사는 지도서의 내용을 년/월/주/일 계획안으로 배치하고, 계획안대로 운영하는 업무 수행(performance) 능력만을 중시하게 되었다. 교사는 지식전달자로서 무엇을 가르쳤는지(교육목표)와 활동 결과를 중시하고, 유아가 무엇을 경험하고 학습하였는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고 있다. 유아의 학습 경험과 흥미는 가르침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고, 교육과정의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은 약화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운영 즉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에 대한 교사의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계획안 중심의 운영은 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의 걸림돌이 되어 가고 있다.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적용하려는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은 유아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유아의 일과는 교사의 계획대로 조직·운영되고, 유아는 이를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길들여지면서 일과 중 유아들은 “선생님, 다음에는 뭐 해야 해요?”라는 질문을 종종 던진다. 유아는 스스로 놀이를 계획하고, 주도하는 능동성, 창의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확산적 사고보다는 교사의 승인과 인정을 받기 위한 수동성, 수렴적 사고를 하게 되고, 자유놀이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 능동성, 정서적, 사회적 능력 역시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운영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아교육의 성장과 발전에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은 기여하였고, 그 과정에 참여한 많은 연구진의 노력과 고뇌가 있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초중등에 비하여 연구와 준비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도 있었음을 인지할 필요는 있다.

이제 누리과정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현재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이 가진 여타의 문제와 혼선을 점검하고,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진정한 창조적 인간 양성을

위하여 어린시기 가장 필요한 진정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회복해 가는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수능-학문중심의 파행적 학교교육과정을 정상화 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유일하게 인간본성으로서 놀이를 교육과정에 담고자 한 유아교육과정의 숭고한 이념을 지켜내고, 진정한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을 통한 유아교육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성격에 부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성격과 운영,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동하는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생애주기 상 가장 근원적 학습경험이 만들어지는 유아기 어린이들을 위하여 진정한 놀이중심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지, 현재 국가가 고시한 유아교육과정의 고시문과 이를 실행해 가기 위해 보급된 해설서, 지침서, 그리고 교사용지도서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정의 본질과 성격, 내용과 구성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교육과정에 유아기의 놀이 정신이 어떻게 반영됨으로써 영유아의 최대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또한 기관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살아숨쉬는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를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장에서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정책의 문제점을 유아교육과정의 성격과 운영, 평가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현장에서 유아들의 자유놀이가 살아나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실천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성격의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도출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성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누리과정 고시문과 교단자료 등에 제시된 누리과정의 성격과정체성 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의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도출

누리과정 운영 형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아, 교사, 유치원에서 운영의 자율성 및 다양성 침해 요소 분석한다. 또한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유아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평가의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도출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의 평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서중심, 계획안 중심의 유치원 평가의 문제점 진단하였다. 또한 단위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존중하고, 유아와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가능케 하는 방안 및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라. 종합적 정책 제언

한국의 유아교육과정과 유아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국가수준의 유아교육의 성격에 부응하는 자유놀이중심의 자율적인 유아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3. 연구과정

가. 문헌연구

유아교육과정 및 유아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분석 및 검토 하였으며, 교육과정 및 유아교육 재개념화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나. 전문가 의견조사

현장과 학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럼 형식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 및 유치원 평가 자율화를 위한 추진과제 공동 검토, 기타 유치원교육 자율성 확대·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 지속 발굴, 기존 정책의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볼 기회를 가졌다. 또한 정책연구진과의 협의 및 정기회의를 연구기간 내에 약 5-6회 정도 가졌다. 교육부의 협력 하에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대표들이 매 포럼마다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적으로 경청하였다. 포럼 개최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3-1〉 전문가 포럼 개최 일정과 내용

구분	일정	내용
1차 포럼	2017.10.13.	<input type="checkbox"/> 제 1차 유아교육 포럼 토의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중심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소고' - 발제자 주제 발표 : 임부연(부산대학교) - 발표 주제 문제제기 - 문제진단 : 교육과정 성격의 문제, 교육과정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 등 - 개선방향 : 유아교육과정의 고시문의 성격,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격 등 - 토의 결론 <input type="checkbox"/> 제 1차 유아교육 포럼 토의 안전에 대한 토론 토론자 : 이수연(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신영진(한국유치원국공립연합회), 김광숙(한국유치원총연합회) 외 유아교육과정의 교육현장에서의 요구

구분	일정	내용
2차 포럼	2017.10.24.	<p>□ 제 2차 유아교육 포럼 토의 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소고’ - 발제자 주제 발표 : 정선아(숙명여자대학교) - 발표 주제 문제제기 - 문제진단 : 통합과 놀이의 의미 왜곡, 계획안 중심의 교육과정운영으로 인한 유아 경험의 동질화, 1일 45시간 운영 시간의 모호성 - 개선방향 : 놀이중심 통합 교육과정 명시, 기관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 적시, 상호작용 의미 명료화,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적시 - 토의 결론 <p>□ 제 2차 유아교육 포럼 토의 안건에 대한 토론</p> <p>토론자 : 김해운, 신영진(한국유치원국공립연합회), 김광숙(한국유치원총연합회) 외 유아교육과정의 교육현장에서의 요구</p>
3차 포럼	2017.11.8.	<p>□ 제 3차 유아교육 포럼 토의 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준 유치원 평가에 관한 소고’ - 발제자 주제 발표 : 이경화(부경대학교) - 발표 주제 문제제기 - 문제진단 : 유아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평가, 유아교육과정을 획일화시키는 평가지표, 객관화·기계화된 외부자 중심 평가방식 - 개선방향 : 유아를 존중하는 평가, 유아교육과정의 다양화를 보장하는 평가, 단위 유치원이 주체가 되는 간주간적 평가 - 토의 결론 <p>□ 제 3차 유아교육 포럼 토의 안건에 대한 토론</p> <p>토론자 : 이수연(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신영진, 김해운(한국유치원국공립연합회), 김광숙(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혜은(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지회) 외 유아교육과정의 교육현장에서의 요구</p>
4차 포럼 국회 토론회	2017.12.21.	<p>□ 주제 : 누리과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목적) 기존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현장의 다양한 교육 방식을 존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유치원 특성에 맞는 자율적·창의적 누리과정 운영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7.12. 21.(목) 14:00~17: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후원 : 신동근 의원실 / 교육부 ○ 참석자 : 유아교육·보육관계자* 등 80여명 내외

4.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2016년 일반과제인 박창현, 양미선, 조혜주의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운영 다양화 방안(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25)에 제시된 누리과정에 관한 교사, 전문가, 국민여론조사(빅데이터 기반), 국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례조사, 정책제언에서 도출된 시사점들을 기초 데이터로 참조하였다. 이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1〉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운영 다양화 방안 연구결과 개요

<누리과정에 관한 SNS 소셜 빅데이터 분석(2013-2016, 17,651개 온라인 뉴스 분석)>
<input type="checkbox"/> 누리과정 정책은 무상교육·보육 정책으로 인식되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의 정책에 대한 관심은 낮아졌음. <input type="checkbox"/> 무상교육·보육비의 지원으로 영유아의 기관이용률이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자 2015년 이후부터는 0-2세 가정양육정책으로의 전환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재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됨. <input type="checkbox"/> 누리과정에서는 보육교사와 기관의 질 제고에 대한 네티즌들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비리, 유치원에서의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 CCTV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되었음.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누리과정 5시간 운영, 양성평등교육 내용 포함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 <input type="checkbox"/> 추후 누리과정 정책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정책’으로서 정체성을 찾아갈 필요가 있음.
<누리과정 운영 실태 및 인식 분석(교직원 868명 설문조사)>
<input type="checkbox"/> 누리과정 도입 후 교육·보육과정이 확립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들의 누리과정 숙지정도에 대한 자기 인식은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남. - 오전 특별활동 감소, 바깥놀이 시간 증가, 부모의 교육부담 경감, 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교육과 보육의 평등성이 강화되었다고 인식 -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는 낮게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누리과정 지도서를 그대로 활용하고, 누리과정 운영시간과 일과시간이 확립되어 있는 것이 원인으로 나타남. - 교사의 국가수준 운영과정 이해와 재구성 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누리과정의 질에 관한 정책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측면에서 ‘교육과정 구성에서의 교사의 자율권 신장이 해결’,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구성원이 공유’가 중요하게 조사됨.

- 커리큘럼의 측면에서 '유아의 잠재력과 같은 교육목표를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기관별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 '학급수준에서 교육목표나 가치에 따라 누리과정이 자율적으로 편성되어야함'이 정책 우선순위로 분석됨.
- ECEC 접근성의 측면에서는 '지역단위에서의 협의체의 구성과 활성화'를 통한 정책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전문가 델파이 의견 분석을 통한 정책우선순위 항목(정책전문가 32인 의견 조사)>

<p>교육과정 운영 및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보육과정 운영 지침서 및 매뉴얼의 다양화, 유연화 - 누리과정 운영 편에서 발전적 교육과정, 교육공간의 재구성 등의 가능성을 보다 포괄하도록 진술 수정 - 누리과정 운영 평가 편에서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 필요 - 교육과정 계획, 운영, 평가과정을 교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평가 도구 개발 필요 -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교육계획안 작성 축소 - 지도서에서 놀이와 학습의 관계를 재정립 - 지침서의 생활주제와 활동의 양 줄이기 -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생활주제별 학습 내용의 수준을 유아의 발달에 맞게 하향조정 또는 재조정 - 혼합연령 학급 관련 지도서 제시 - 교육과정을 심화·확장할 수 있는 종일제 및 방과후과정 지도서 제시 - 장애유아와의 통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화
<p>행·재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재정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강화 -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역할 분담 및 상호 유기적인 연계구조 구축 - 예산배정 및 지원, 서비스전달 측면에서 상부 행정기관의 관료주의와 성과위주의 행정 혁신 - 누리과정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내 포괄적인 복지지원체계 연계 및 활성화
<p>법/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작업시, 다양한 전문가집단 포함 -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유아의 권리보장을 명문화 - 유·보통합을 통한 관리부처의 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 지방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지원 및 정착 - 교사 대 유아 비율뿐만 아니라, 한 학급당 유아수를 제한 - 교사 1일 근로시간 8시간 준수, 수업 준비시간 확보를 위한 조례 마련
<p>조직/경영 /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의 노동시간과 잡무를 줄일 수 있는 내부 혁신 문화 독려

<교육과정 다양화 우수 운영 사례(유치원 6개, 어린이집 4개원 사례조사)>

- 10개의 우수 기관들은 누리과정을 학습과 발달의 최소한의 표준으로 활용하고, 기관의 고유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이고 다양하게 운영하여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있음.
 - 공통적으로 유아교육원리에 충실, 누리과정을 표준으로 이해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 발현적 교육과정 강조, 몸으로 배우는 생활교육, 부모참여와 아동중심운영,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는 원 분위기, 교사의 수업준비시간 확보, 교사 연구시간 확보 및 노동조건 지원, 문화적 다양성 교육, 원장의 혁신 마인드, 교사의 누리과정 재구성 및 성찰 등 질높은 교육과정의 특성을 나타냈음.

<누리과정 정책 개선 방안 및 과제>

-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정체성 강화 및 교육·보육과정 개념 정립
 - 누리과정 정책을 '유아기 표준'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기
 -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누리과정'으로 패러다임 전환
- 누리과정의 슬림화/지역화 및 교육과정의 재구성 강조
 - 누리과정 내용을 대폭 축소, 유아기 학습과 발달 표준을 중심으로 슬림화
 - 교육과정의 다양성 강화를 위한 법률 조항 개정 검토
 - 누리과정의 '2. 운영', '3. 교수학습방법'의 진술 제고
 - 지도서 형태의 다양화 및 다양한 재구성 예시를 보여주는 자료 발간·배부
- 아동권리 및 문화적 다양성, 공동체적 삶에 관한 교육내용 강화
 - 공동체 삶 지향 목표 및 내용 진술 및 세계시민교육 기반 봉사학습 사례 제시
- 기관의 운영 시간 및 운영 형태의 다양화 독려
 - 1일 4.5시간 운영시간 삭제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의 업무 전달 형태로 필요 사항 관리
- 교사 1일 근로시간 8시간 준수, 수업준비시간 3시간 확보 조례 마련
- 교사연수제도의 프레임 변화 및 고경력 교사 채용시 재정 지원 조항 마련
 - 교육과정 연구 및 원내 교육과정 연수를 지원하는 연구교사 배치 및 확대
 - 고경력 교사 채용시 재정지원 방안 마련
 - 교사의 연수 체계를 교사 역량 개발에 맞게 체계화
 - 유아특수교사와 유아교사와의 누리과정 협력 교수 모형 개발
- 평가 체제의 변화 및 개선에 대한 요구
 - 현행 유치원평가제, 어린이집평가인증제의 교육과정 평가 방향 재설정
- 민주적 거버넌스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 누리과정 교사 연수에서 대단위 강의 대폭 축소, 지역중심 및 현직교사중심 교사 연수 강화
 -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기반을 둔 순환적 장학체계 구축
- 장애통합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확대 및 인력 지원
 - 신설 국공립 유치원에 특수학급 의무 설치, 사립유치원에서 특수학급 설치시 인센티브 수여
 - 방과후과정에 유아특수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책 마련
- 누리과정의 안정적 지원 고려 및 재외국민 지원방안 검토

II.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문제점 진단

1. 성격

- 문제점 진단 -

- ✓ 누리과정 고시문·교사용 지도서의 문제: 교육과정 성격 기술의 모호성
- ✓ 교육과정 내용과 형식의 문제: 무한 반복되는 활동형식, 방대한 분량의 활동계획안, 가법적으로 통합되는 구조주의 교육과정
- ✓ 교육과정 구성체계의 문제: 내용영역·활동유형·흥미영역·생활주제의 복잡한 관계성
- ✓ 총론의 문제점: 추구하는 인간상 누락, 시수와 놀이의 충돌 등
- ✓ 각론 및 5개 영역의 연령별 구성 내용의 문제점: 세부내용을 성취목표로 인식

가. 고시문·교사용 지도서의 문제: 교육과정 성격 기술의 모호성

먼저 현재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을 둘러싼 많은 논란 중에 유아교육과정의 정체성과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현재 유아교육과정에는 교육부가 제정 공포한 누리과정이 있고, 이후에 고시문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전문가가 다시 제작 배부한 해설서와 지침서, 그리고 교사용지도서가 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a, 2013b). 그러나 대부분의 유아교사와 유아교육 전문가들도 고시문과 교사용지도서를 명료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법적 근거를 가지는 고시문과 교사용지도서를 동일시하거나, 오히려 교사용지도서가 유아교육과정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명료한 구분과 해석이 시급하다고 본다.

현장에서는 고시문과 해설서와 지침서, 그리고 교사용지도서가 오히려 1가지 종류의 국정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어(이경화, 2017), 마치 규범화된 법령처럼 강제되고 있다. 이는 다시 유아교육기관평가의 부메랑이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침서에서 영역중심의 활동사례로 제시한 내용과 교사용지도서의 주제 중심 활동사례가 상이하게 제시되어 혼선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누리과정의 총론과 각론, 그리고 교사용지도서의 구체적 활동에서 나타난 용어가 놀이보다는

초등학교 학습과 연계되어 있어(예, 지식, 기술, 태도 등), 놀이가 강조된 유아교육 정신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시문은 유치원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과정에서 암기되어야 하는 정전이 되었고, 실제 현장에서의 하루 일과는 주제에 따라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활동을 재현하는 교수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다. 즉,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고시문은 사라지고 소수의 전문가가 해석하고 제시한 활동의 사례가 곧 유아교육과정이라고 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나. 교육과정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 무한 반복되는 활동형식, 방대한 분량의 활동계획안, 가법적으로 통합되는 구조주의 교육과정

고시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해설서와 지침서, 지도서는 이미 현장에서 개발된 좋은 활동을 최선의 교육내용으로 신념화한 일부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유아교육과정의 교단자료로 만들어졌다. 이후 이러한 활동유형과 구조를 연습한 수많은 현장교사들에 의해 무한대의 대소집단 활동이 개발되면서 활동방법이 더욱 방만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현장의 교사들은 생활주제가 유아들이 일상과 삶의 경험을 가장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다는 신념을 절대화 하였고, 무한대로 주제만 바꾸면서 비슷한 형식의 활동을 개발하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교사들은 오히려 비전문화 되었다. 비슷한 형식에 주제만 바꾸는 활동개발자가 된 교사들은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었다(박민정, 2005; 심성보, 1996; 임부연, 2015). 즉, 현재 교사용지도서의 각 단위활동계획안은 엄선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수없는 필터링의 과정을 거치면서 철학적 신념을 물질화한 것이라기보다, 교사들의 실천적 지식과 경력에 따라 증가하게 된 단순한 교수기술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개발된 단위활동이 되었다.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집이 곧 방대한 교사용지도서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획일화와 교사의 탈숙련화 현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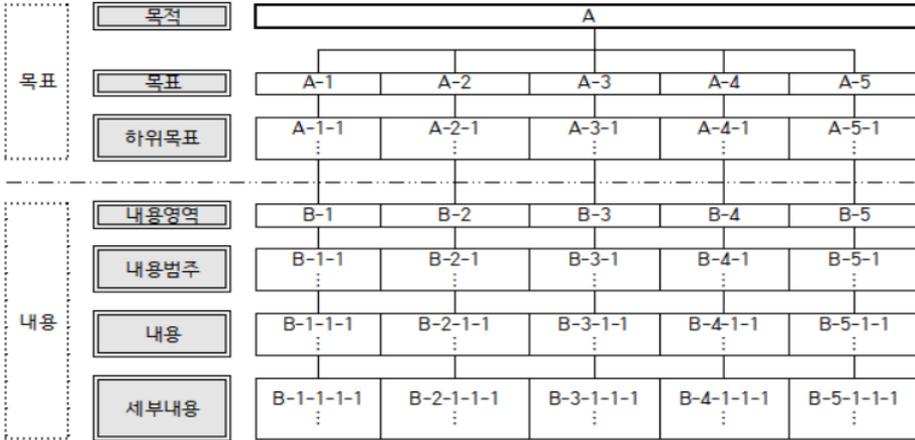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아교육과정은 그동안 거의 8번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앞서 개발된 활동들을 거의 폐기하고 늘 새로운 활동계획안을 만들어 왔다, 정치적 이유로 시급한 개발이 요구되면서 단위활동의 내용과 교수방법을 충분히 검토하는 치열한 과정이 매번 생략되어 왔다. 이에 현재 누리과정은 11개의 생활주제에 각 생활주제마다 4개의 소주제를 가진다. 각 주제마다 10-20개 정도의 대소집단 활동이 개발되면서 1개의 생활주제 당 50-60개의 단위활동을 가져, 한 연령 당 총 600여개의 활동계획안을 갖게 되었다. 이는 180일의 교육일수에서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울 방대한 양이 되었으며, 이를 만 3-5세로 총합하면 2116개의 단위 활동계획안이 제공되고 있다. 이를 확인하면, 다음의 <표 II-1-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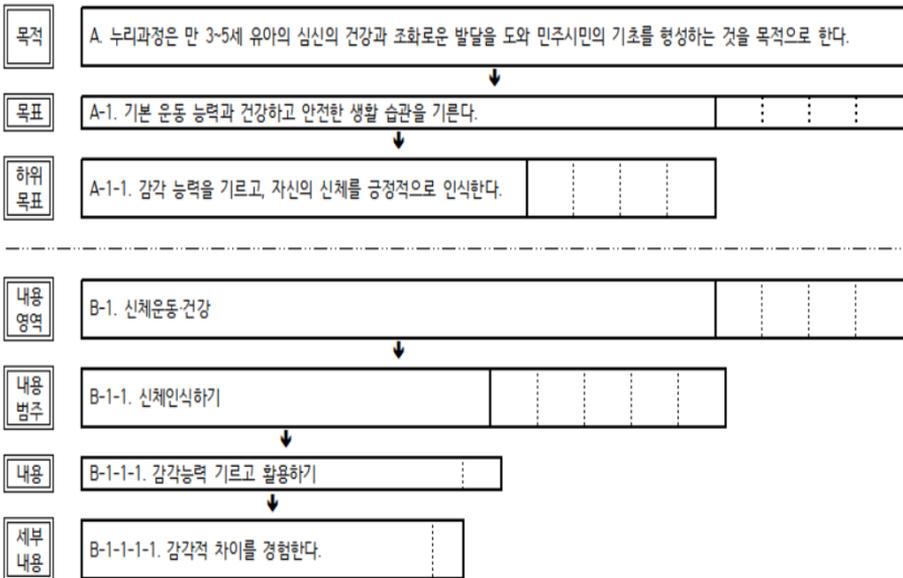
<표 II-1-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내용 구성 현황과 계획안의 양

내용영역	내용범주	내용			세부내용		
		3세	4세	5세	3세	4세	5세
신체운동·건강	5	14	14	14	31	32	33
의사소통	4	10	11	11	17	25	25
사회관계	5	11	12	12	20	28	29
예술경험	3	10	10	10	17	20	20
자연탐구	3	11	12	12	18	24	30
전체	20	56	59	59	103	129	137
		174			369		

문제는 이러한 방대한 활동계획안은 주제만 바뀔 뿐, 발문의 형태는 매우 비슷한 구조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내용지식을 핵심개념으로 요소화하고, 이를 다시 취합하고 배치되어 보편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구조주의 교육과정의 모습이다(Foucault, 2012). 목적은 목표로 나뉘고, 목표는 영역별로 하위목표로 다시 나뉜다. 반대로 하위목표들이 모여 영역별 목표를, 영역별 목표들이 모여 교육과정의 목적을 만들어내는 덧셈과 나눗셈의 논리로 구조를 이룬다. 하위목표는 내용범주와 1:1 대응하고, 내용범주는 다시 내용으로, 내용은 다시 세부내용으로 분화되는 체계다. 세부내용들을 다 가르치면(배우면) 상위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되고, 상위 내용들을 가르치면 내용범주를, 그리고 내용범주들을 가르치면 내용 영역을 가르치는 것이 되는 논리다. 즉, 내용영역들을 골고루, 모두 가르치면 영역별 목표를 달성하고 영역별 목표를 모두 달성하면 목표로 나아가고 다시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Tyler의 교육과정 개발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누리과정 고시문의 '5개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편성한다'라는 문구는 교육과정의 구조주의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확인하면, 다음의 [그림 II-1-1] 과 [그림 II-1-2]와 같다.



[그림 11-1-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구조



[그림 11-1-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구조의 예(신체운동·건강영역)

문제는 3-5세 유아들은 이러한 논리구조로 세상을 경험하고 학습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누리과정은 유아들이 369개의 세부내용을 배우면,

174개의 내용을 배운 것이고, 174개의 내용을 배우면 20개의 내용범주를 배운 것이며, 또 20개의 내용범주를 다 배우면 5개 영역내용을 숙달한 것이 되는 구조, 그리고 5개 영역의 내용을 모두 배우면 20개의 영역 목표를, 20개의 목표를 달성하면 5개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중국적으로는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

다. 교육과정 구성체계의 문제: 내용영역, 활동유형, 흥미영역, 생활 주제의 복잡한 관계성

누리과정은 매우 복잡한 구성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누리과정은 교과와 발달을 표방한 5개영역의 모호성, 생활주제와 교육내용의 혼선, 일과표와 대소집단 활동유형의 교과화, 그리고 자유선택활동을 위한 교실환경이 놀이를 표방한 학습공간으로 구성되고 있는 이중 구조들이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예비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은 모두 교과화되어 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양성과정에서부터 유아교육을 교과로 인식하며 출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예비유아교사들은 교과를 통합해야하거나, 교과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드러나지 않도록 배운다.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유아교육과정의 고시문, 지도서, 하루일과와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은 모두 교과를 은폐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은 예비 유아교사들이 유아교육과정을 실천적 지식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만들고 있다.

누리과정의 5개의 영역은 통합과 발달, 그리고 교과가 혼재되어 있고, 주제중심 단위활동과, 하루일과를 구성하는 대소집단 활동도 마치 교과처럼 수업의 단위가 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다른 얼굴을 한 교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5개 영역이 진정한 유아교육과정의 구성내용인지, 주제가 교육과정의 구성내용인지, 아니면 흥미영역으로 나타나는 놀이화된 교과가 교육과정인지 혼란을 야기한다. 문제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러한 구성체계를 모두 혼용하여 계획안에 담아내야 하며, 스스로 주제 활동을 하고, 5개 영역을 실행하였다는 자기논리를 정당화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표 II-1-2>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2〉 유아교육과정의 복잡한 구성체계

유아교육과정 (주제중심통합교육)					초등교육과정 (교과중심+주제중심)
예비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	유아교육 과정 고시문	교사용 지도서	하루 일과	환경 구성	교육과정/ 교과서 일과시간표
유아언어 유아문학 유아수학 유아과학 유아사회 유아미술 유아음악 유아동작 유아놀이 유아부모교육 유아교육과정 유아관찰 유아교사론 유아교육개론	5개영역: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표현 자연탐구 (기본생활 습관) 표준보육 과정	유치원과 나 동식물과 자연 가족 우리동네 건강과안전 교통기관 생활도구 우리나라 세계여러 나라 환경과 생활 봄, 여름, 가을, 겨울 (11개/16개) ¹⁾	자유선택 이야기 나누기 동화동시 동극 음률활동 신체활동 미술활동 바깥놀이 게임 요리	흥미 영역: 역할놀이 쌓기놀이 과학영역 언어영역 수조작 음률영역 미술영역	국어 수학 바른생활 즐거운생활 슬기로운생활 (학교, 봄, 가족, 여름, 이웃, 가을, 우리나라, 겨울)
교과중심	영역중심	주제중심	활동중심	교과중심	교과중심
교과가 은폐됨					

즉, 봄에 대한 게임을 하면, 신체건강영역의 누리과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야기나누기와 게임과 같은 독창적 활동과 자유놀이의 핵심인 소꿉놀이와 블록놀이가 유아교육의 고유한 특이성을 보여주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와 발달, 주제중심에 묻히며 모호한 형태로 축소 왜곡되어 있다. 결국 유아교육과정 전체의 교과, 놀이, 영역, 활동, 일과 시간표, 혹은 주제가 결국 유아가 학습할 최소한의 내용(교과)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이나 '교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놀이' 중심교육과정이라고 정당화 하는 논리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혼선을 역으로 꿰어 맞춘 것이 주간교육계획안과 단위활동계획안이다. 주간교육계획안에는 주제와 소주제, 주요내용이 상세화되어있고, 각 소주제에 따른 활동명, 활동유형이 있으며,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을 연계하기 위한 누리과

1) 현재 누리과정 생활주제는 11개로 통합되어 있으나, 초창기 유아교육과정에서는 동물과 식물이 별개로 진행되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초등처럼 별개의 주제로 실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제 16개 이상의 생활주제로 보아야 한다. 이는 아마도 초등에 비해 유아교육과정 생활주제가 더 많다는 점과, 또 생활과 도구, 환경과 생활 등 어려운 주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동물과 식물, 계절을 하나로 묶어 버린 것으로 보인다.

정 관련 영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각 단위활동의 맨 오른쪽 위 칸에 별도로 활동유형과 자유놀이 환경구성 영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는 5개의 영역을 제시한 누리과정 고시문을 단위활동과 연결할 유일한 고리로서 오른쪽 위 칸에 '누리과정 관련요소'를 명시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다. 즉,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을 실제 교육과정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표면화되기 어려운 구조를 계획서 안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의 활동은 유아들의 경험 전체를 의미하므로, 누리과정의 5개 영역에서 단지 한 두 개의 요소만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지금의 교육계획안은 교사들이 이를 실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도록 하는 일련의 관념을 만들어 내고, 이를 현실로 믿게 하는 초월적 교육과정을 생산해내고 있다(Doll, 1997; Pinar, 2013).

이러한 문제점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과 비교해 볼 때 더 명료해진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국어와 수학과 같은 교과를 중심으로 주요 교과가 배치되어 있고, 이외의 학습 내용은 바·즐·슬(바른생활, 즐거운생활, 슬기로운생활)로 부분 통합되어 있다. 최근에는 유아교육처럼 주제중심으로 부분통합을 하여 8개의 주제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히려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가 제시하는 생활주제가 11개(실제 16개)로 더 많다. 또한 초등학교는 교육과정 영역(국어, 수학, 통합교과)의 구성체계가 곧 하루일과 시간표의 단위 활동이고, 교육내용이 되도록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통합 교과와 내용 지식과 주제의 내용 지식을 간결하게 통합하여 국가수준에서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구조이다. 반면, 누리과정은 영역, 환경, 하루일과, 대소집단활동, 생활 주제가 모두 교과와 혼용되거나 은폐된 교과를 표면적으로는 통합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의 5개영역은 연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교사들이 고시문과 지도서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어렵다.

실제로 누리과정의 고시문 그 자체는 기관(또는 학급) 교육과정 실천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많은 교사들은 정부 발행의 교사용 지도서나 연령별 프로그램, 그 외 상업화된 레시피형 활동자료들에 의존하여 교육계획안을 짜고 있고, 그러한 자료들이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고시문은 개정 시기에 맞추어 계획되는 교사 연수에서나 듣고 보는 것이며, 공립유치원교사 임용시험을 위해 토시하나 틀리지 않도록 외우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의 역할은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과 그 시기 배워야(가르쳐야) 한다고 합의된 기본적인 내용(경험)을 언표하고, 교육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국가 교육의 지향을 숙지하도록 하는데 있다. 누리과정의 고시문은 우리나라 유아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지, 그리고 최소한 무엇을 경험하도록 가르쳐야(배워야) 하는지를 담으면 된다. 교육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 이렇게 목표를 세분화하고 내용을 과잉 계열화해야만 하는지, 3세는 '감각적 차이를 경험한다.', 4세는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식의 369개 문장을 나열해야만 하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미국의 주(州) 교육과정 표준(state curriculum standards), 뉴질랜드의 「테 파리키(Te Whāriki)」, 스웨덴의 「유아학교 교육과정(Curriculum for the Preschool Lpfö 98)」(OECD, 2011)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용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교육과정이 가치를 강조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누리과정은 너무도 상세하게 교육내용을 분절화, 구체화 하고 있다.

라. 총론 내용의 문제: 추구하는 인간상 누락, 시수와 놀이의 충돌 등

1) '추구하는 인간상' 누락

교육과정은 인간상에 부합하는 목적과 목표로 기술되고, 구성방향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가가 고시한 누리과정의 총론을 살펴보면, 추구해야할 인간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유아교육과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구성방향과 목적, 그리고 목표를 가지는데, 사실 이 두 가지 구성내용도 가치와 방법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총론에 제시된 구성방향의 내용에서도 가치와 방법이 혼재되어 있다. 누리과정의 목적은 인간상의 부재로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고, 목표는 5개의 영역(내용지식)을 그대로 하나씩 제시하며 학습해야할 내용지식을 목표로 설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과정이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인간상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간이 이루어야할 성취를 개별화, 파편화 하고 있다는 비판을 야기한다. 이런 교육과정의 구조는 가장 조화로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의사소통, 사회기술, 신체건강, 예술표현, 과학적 태도의 기술적 내용을 가법적으로 통합하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2) 편성: ‘시수’와 놀이의 충돌

총론의 ‘편성’에는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실행될 때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용어들이 배치되어 있다. 1일 4~5시간의 편성은 유아들이 하루 종일 놀이한다고 볼 때,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상통하지 않는다. 누리과정을 수업시수로 보는 관점은 마치 누리과정을 하는 4~5시간은 수업이지 놀이가 아니라는 전도된 논리를 가져오거나, 또는 4~5시간만 놀이이고 그 이외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 등은 ‘놀이’가 아니게 되는 모순을 불러온다. 즉, 놀이가 중심이 된 유아교육과정이 놀이를 수업으로 시수화하여 놀이를 교과와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김희연, 정선아, 오문자, 2012).

3) 운영: ‘교육계획안’과 유아 흥미 및 요구의 충돌

총론의 ‘운영’ 파트는 연간, 월안, 주간, 일일 계획안에 의거하여 운영한다고 명시화 하고 있어, 과도한 문서작성을 유도하게 되고, 본질적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과도하게 교수계획안을 세밀하게 작성해야 하고, 또 평가에서 증빙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그 자체가 교육과정을 잘 실행했는지에 대한 준거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즉, 계획서는 교사가 왜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책이 될 여지가 크므로, 교사는 계획서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발문 순서를 암기하는데 초점을 두어 놀이를 제한하게 된다.

4) 운영: ‘흥미영역’으로 인한 유아의 놀이공간의 교과화

누리과정에 따르면, 실내외 환경을 흥미영역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이를 당연시한다. 그러나 ‘흥미영역’ 구성이 왜곡될 경우, 유아교실의 놀이공간이 학습공간으로 오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아기 자유놀이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소꿉놀이와 쌓기놀이가 여러 개의 놀이영역 중 하나로 축소되고, 유아교실의 공간은 다시 교과학습 영역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흥미영역이 일종의 교과학습 영역으로 운영될 때, 교사는 매번 주제와 맞는 지시적 교재 교구를 제작하고, 이를 교체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5) 교수·학습방법: ‘지식·기술·태도’와 교사 및 유아 놀이 역량 충돌

교수학습방법에서 ‘지식, 기능, 태도’의 언급 또한 교사들의 자유역량과 유아

들의 자유로운 놀이역량을 부자유스럽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교수학습방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계속성의 원리와 전시용 교육과정 용어로 해석되고 있다. 교사는 일일활동계획서의 목표를 진술할 때 ‘지식, 기술, 태도’를 활용하여 목표를 기술하고, 균형잡힌 교육과정을 완성했다고 스스로 자기검증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유아의 진정한 놀이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6) 교수·학습방법: ‘능동적 상호작용’의 IRE 구조로의 의미 왜곡

‘능동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언급도 주의깊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호작용에 대한 불분명한 해석으로 교사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유아들의 놀이에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아가 놀이에 충분히 몰입하기보다는 교사가 만든 프레임 내에서 생각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고, 교사의 질문들이 주로 ‘인지’에 중심을 둘 때, 겉으로는 놀이중심, 아동중심을 표방하나, 실제 교육과정 운영은 인지중심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즉, ‘능동적 상호작용’은 원래 방임 또는 지나친 아동중심교육원리를 ‘구성주의’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아교사들의 발문형태를 살펴보면, 상당히 획일화되어있고, 인지중심으로 흘러가도록 하여 결국 ‘놀이성’을 방해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는 현재 교사용지도서에 담긴 2000여개의 활동계획서의 전개방식(발문의 형태와 구조)이 모두 IRE²⁾의 구조를 가지게 하는 오류를 낳고 있고, 현재 누리과정의 ‘획일화’ 비판의 핵심이 되고 있다(강현석, 2005; 김재춘, 2003, 박순경, 1997). 지도서의 활동방법에서 제시된 상호작용의 예시는 거의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형상화한 탐문과 추론, 회상하기와 검증하기, 일대일대응하기, 유목화하기, 명명하기, 순서짓기의 발문의 예시들이다.

놀이가 유아교육의 중심이며 상징이라면, 유아에게 놀이가 아닌 시간은 결국 유아교육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비록 2000여개 활동계획안의 모든 활동이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발문 구조들이 이러한 놀이를 품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 그것은 유아교육의 본질과 정체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놀이가 상실된 교육내용은 유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결국 상호작용이 왜곡된 인지중심 탐문과 논리실증주의식 발문은 유아교육과정이 목적으로 하는 인간상(심신의 건강함과 조화로운 인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인지적으로 비대

2) IRE(Initiation, Response, Evaluation)은 교사가 먼저 묻고 유아가 반응하면 교사가 다시 맞다 틀리다로 평가하는 구조주의 발문의 전형적인 예시를 말함

한 인간을 만들고 심미감과 감응력이 현격히 부족한 비인간화 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한다(임부연, 2015).

마. 각론 및 5개영역의 연령별 구성 내용의 문제: 세부내용을 성취 목표로 인식

현재 누리과정은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5개의 영역은 실제로 국어(의 사소통)와 수학, 과학(자연탐구), 사회와 체육, 실과(건강안전), 그리고 음악미술 동작(예술표현)교과를 통합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거의 교과중심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 5개 영역은 교육과정의 목표로서 조화로운 인간상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리고 각론에서는 교육내용으로 세분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목표와 교육 내용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각론의 내용은 5개 영역을 내용범주, 내용, 세부내용으로 다시 분화시키고 있는데, 영역별 45개의 내용범주, 각 내용범주 당 2~4개의 세부내용을 담고 결국 총 20개의 내용범주와 50-60개의 내용, 그리고 약 369개의 세부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유아교사들이 교육과정으로 여기는 교사용지도서의 각 단위활동의 활동목표는 세부내용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고, 세부내용이 곧 내용지식처럼 되어 있다. 문제는 세부내용에서 내용 간 그리고 연령 간 구분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다. 또한 세부내용이 지나치게 미시적이고 방대하여, 결국 '배움이 통합'이라는 분리 불가능한 고유의 성질을 저해하고 있고, 놀이정신을 침해할 수 있다.

교사는 누리과정의 세부내용을 성취해야할 교육내용으로 오인하게 되고 유아들의 자유로운 놀이내용을 구조화시켜, 교사 권력이 개입될 여지를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동작은 춤과 같이 유쾌하고 무차별적인데, 교사는 발을 떼지 않고 움직여 보게 하거나, 앞뒤로만 가지 말고 옆으로도 가야 한다는 세부내용의 내용지식에 초점을 두게 되어 교사의 언어 권력이 유아들의 몰입과 풍요로운 미적체험의 발생을 방해할 수 있다. 연령별 차이에서도 '관심을 가진다'와 '특성을 안다'의 구분이나, '특성을 안다'와 '차이를 구분 한다'의 차이가 언어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에서 지각과 감각의 차이는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언어의 권력화가 나타난다. 교사는 '차이를 느끼니?' '차이를 구분하여 보자'라는 발문으로 상호작용을 도식화해야 하는 압박감을 가지게 되며, 결국 유아에게 유쾌한 놀이는 사라지고 다소 즐겁지 않은 교육과정이 실행된다.

2. 운영

- 문제점 진단 -

- ✓ '통합'의 의미의 문제: 주제중심 활동으로 획일화, 통합대상의 애매성, 생활주제를 지식으로 의미 왜곡
- ✓ 놀이중심의 편성, 교수·학습활동의 문제: 놀이의 의미와 가치 왜곡, 놀이를 교수·학습으로 간주, 유아의 삶을 공부와 놀이로 분리
- ✓ 계획안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 교육과정 운영의 필수요건이 된 계획안, 유아 경험의 동질화
- ✓ 1일 45시간 운영의 모호성의 문제: 교과별 시수 개념의 부적절한 적용, 수업시수 개념 작동으로 인한 자유놀이의 가치 절하

가. 통합'의 의미의 문제: 주제중심 활동으로 획일화, 통합대상의 애매성, 생활주제를 지식으로 의미 왜곡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에서 통합은 5개 영역 내용의 균형있는 편성을 의미하며,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시하여 유아교육과정은 통합교육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유아교육에서 통합교육과정은 5개 영역 내용의 통합 편성이며, 이는 주제중심의 통합 접근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교과교육을 전제로 한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교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하여 왔다. 통합교육을 논의하면서 교과의 통합, 교과목의 수 조정이나 인접 교과의 통합을 주제로 삼아왔다. 그러나 점차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주제로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유아교육에서 통합교육과정의 논의는 통합교육과정의 당위성만을 내세우는데 그쳐왔다(김희연, 2017).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의 각론이 발달 영역으로 구성되었을 때는 5개 발달 영역의 통합이 통합교육과정의 주제였으나, 생활영역의 도입으로 5개 생활영역의 통합으로,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다시 5개 영역(사실상 생활영역과 동일함)의 통합으로 주제는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논의도 충분하지 않았고, 5개 영역의 통합은 포가티의 거미줄형 통합 방식 중 유아교육에 가장 적합한 생활주제 접근이라고 결론지어 버

렸다(김희연, 2013; 정선아, 2004). 그러나 교육학 일반에서 통합교육의 방식의 하나인 거미줄형 통합은 교과와 존재를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가 존재하지 않는 유아교육에서 거미줄형 통합은 생활주제 접근과 일체화되었고, 거미줄형 통합이 생활주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기숙, 2013). 그렇다면 교과가 없는 유아교육에서 포가티의 거미줄 통합(교과를 전제로 한 통합)이 생활주제 접근의 가장 적합한 방식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편성

2. 5개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편성한다.

교수·학습 방법

마.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림 11-2-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총론에 나타난 ‘통합’에 대한 기술

사실 유아교육의 통합교육과정은 가법적 통합, 도식화된 양적 통합, 통합 대상의 애매성, 방법주의 및 교수주의 통합이었다(김희연, 정선아, 2009). 가법적 통합은 인간이 특정 영역의 발달로는 완전할 수 없고 모든 영역에서 경험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 전인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각각의 조화로운 발달을 명시하면서 각각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평가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조화라는 말이 시사하는 대로 교육적 노력을 각각의 사이에 가능하게 균등하게 배분한다(김희연, 2013).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은 5개 영역을 교과로 여기고 이의 각각한 배분과 통합으로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가법적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다(정선아, 2004). 도식화된 양적 통합은 5개 영역의 내용을 생활주제에서 어떻게 골고루 안배되어 다루고 있는지를 도식화하고 양적(각 영역별 활동을 수량화)으로 전체를 보여줌으로 통합을 가시화하고 있다.

통합 대상의 애매성은 유아 경험의 통합을 위하여 유아의 경험에 가까운 생활주제를 선정하여 경험의 연계성과 계속성을 염두에 두는 유아 경험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나, 생활주제에서 개념을 추출하고 이를 주제로 하는 활동은 교수법을 가장한 교과활동(수학, 과학, 음악, 동작, 신체 활동 등)으로 전환되고, 주제는 다시 교과로 쪼갠 후 이를 모두 다루게 하여 활동 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을 추구하여 교과통합을 전제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경험, 5개 영역, 교과활동 영역 간의 통합을 모두 통합의 대상으로 상정함으로써 통합의 대상은 물론 통

합의 목적조차 애매하게 하고 있다. 방법주의 및 교수주의 통합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유아교육의 고유성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이야기나누기, 동화동시동극, 게임 등)은 5개 영역의 내용을 골고루 안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하였고, 교수방법은 교과내용을 통합하는 방편이 되었다.

이에 유아교육의 고유성인 교수방법은 교육내용을 담은 전략으로만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통합적 교육과정의 운영은 통합의 인위적이며 산술적인 가시화로 유아교육의 고유성이자 유아의 경험이 통합되어 있는 자유놀이를 경시하게 되었다. 통합교육과정 운영이 유아교육의 정체성이자 고유성인 유아의 자유놀이를 경시하고, 교과 내용으로 포장한 놀이 교수활동이 유아교육을 대신하고 있다. 통합교육은 오히려 유아교육의 학교화(schoolification)를 강화하고 있다.

생활주제는 교과의 내용이 아닌 유아의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유아의 일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생활주제를 지식의 개념으로 나열하여 교과적 지식 성격(주제, 소주제)으로 만든 후, 이를 다시 유아교육의 방법인 활동 유형(교수·학습활동 유형: 대소집단활동, 자유선택활동)에 교과(음악, 수학, 미술, 과학 등) 내용을 담고, 5개 영역의 내용을 담아 최소의 단위인 활동을 만든다. 그리고 최소의 단위인 활동은 생활주제 안에 균형적으로 골고루 안배된다. 생활주제는 5개 영역의 내용과 관련지어지지 않는다.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은 생활주제(교사용 지도서)의 단위 활동에서만 적용될 뿐이다. 그렇다면 5개 영역 내용의 균형적 통합은 단위활동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5개 영역의 내용을 담은 단위활동의 균형있는 안배는 일안과 주안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활주제 접근이 아니어도 주간계획안 수준의 주제 선정만으로도 5개 영역 내용의 통합은 가능하다는 역설이 만들어진다. 주간으로 운영될 수 있는 주제만 선정되어도 5개 영역 내용의 통합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생활주제 접근으로 통합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유아교육의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아의 흥미와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생활주제 접근의 의미는 퇴색하고 단위활동의 조합(유아교육의 교수·학습활동 유형과 흥미영역의 존속을 위함)을 위한 무의미한 전략(포장)이 되어 버렸다. 생활주제와 5개 영역의 내용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단위 활동에서만 5개 영역의 내용이 연계되고 균형있는 안배를 위해 활동이 개발될 뿐이다.



[그림 11-2-2] 누리과정 5개 영역과 교사용 지도서의 생활주제, 기관 교육계획 간의 관계

생활주제 접근이 통합교육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오래된 신념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생활주제 접근에서 누가 이 접근방식의 주인공이어야 하는지를 망각하는데서 오류가 발생되었다. 유아의 놀이는 생활경험이자 생활세계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경험을 축적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생활주제가 의미있는 유아교육의 교육과정 운영방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유아의 존재방식인 유아놀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사이 성인은 생활주제 접근에 유아에게 의미있는 지식을 유아의 놀이방식에 담아 전달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방식에 구조화된 5개 영역의 내용 지식을 강조하면서 생활주제 접근의 의미는 퇴색하여 버렸다. 주제, 단원접근에서 '생활주제'라는 용어로 바꾼 이유도 유아의 경험과 흥미를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에 있었다. 의도는 순수하였으나, 생활주제에 5개 영역의 내용을 균형적(합산적 방식)으로 배치하려는 의도적 통합이 유아 경험 자체의 통합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나. 놀이중심의 편성 및 교수·학습활동의 문제: 놀이의 의미와 가치왜곡, 놀이를 교수·학습으로 간주, 유아의 삶을 공부와 놀이로 분리

교육과정의 운영은 놀이를 중심으로, 놀이로 편성하고, 놀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놀이로 가르치고, 놀이로 배우기 위하여, 놀이는 무엇이며, 놀이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가 분명하지 않다. 고시문에서 놀이의 개념은 암묵적 동의 사항으로 남아있고, '놀이를 중심

으로 운영한다는 지도서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 지도서에서 놀이는 단위 활동이며, 교사가 교육적 의도(목표)에 따라 교수·학습방법을 이용하여 활동으로 계획하여 이 활동에 유아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 활동인 놀이(활동)은 유아의 흥미나 경험을 반영하여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매개체(교수활동)이다. 따라서 놀이는 유아의 앎을 목적으로 하고, 유아의 앎을 즐겁게 유도할 수 있는 가르치는 방법이 된다(정선아, 김희연, 2011).

편성

다.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를 중심으로 편성한다.

교수·학습 방법

가. 놀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1-2-3] 놀이중심의 편성 및 교수학습방법

결과적으로 놀이는 교수·학습활동이라고 간주된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들이 놀면서 배운다’라고 말한다. 놀이는 유아가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혹은 유아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가르침의 방식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놀이의 본질인 유아의 즐거움, 주도성, 능동성은 사라지고 유아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을 놀이 형식이라고 부르는 교수·학습활동으로 만들어 이에 유아가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놀이는 유아들의 학습의 수단일 뿐 놀이 자체가 목적이고 수단인 본질은 상실하게 된다. 유아의 놀이는 사라지고 교사의 교수활동만이 남는다. 학습을 동반하지 않는 유아의 자유놀이는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놀이의 가치는 유아는 ‘어떤 존재인가’와 함께 논해야 한다. 유아 자유놀이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가능성, 유능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성인들의 놀이에 대한 교수·학습화 노력은 유아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시선에서 시작된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곧 유아가 학습해야 할 것들이라면 유아들은 세상을 준비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유아에게 자유놀이를 허용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은 자유놀이와 바깥놀이로만 일과를 보낸

다. 유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시기의 고유성인 놀이가 살아있도록 할 것인지, 내일의 준비를 위해 현재의 삶을 준비기로 두고 학업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할 것인지 이다. 동시에 우리는 유아의 가능성과 유능성을 인정하고, 유아의 존재 자체인 놀이를 인정하려면 유아와 세계(지식)와의 관계 그리고 놀이에 대해 다시 주목하고, 놀이에 대한 의미를 재개념화하여야 한다.

유아와 세계의 관계 그리고 놀이의 관계는 유아의 존재에 관한 두 가지 관점으로 규명될 수 있다. 유아는 '세계-내-존재(being-in-the-world)'와 '세계-의-존재(being-of-the-world)'로 구분할 수 있고, 두 관점은 지식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며, 유아 존재와 세계(지식, 앎)의 관계, 그리고 유아의 자발성인 놀이에 관한 관점의 차이에서 대별된다(Taguzi, 2010). '세계-내-존재'로서 유아는 앎(knowledge)으로 가득 찬 세계와 별도로 존재한다. 즉, 유아는 주체이며, 지식의 세계는 객체가 되어 주체인 유아는 끊임없이 세계를 탐구하고, 발견하고 지식을 심화·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유아는 지식 혹은 앎(knowledge)의 재현을 통해 지식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식의 오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즉, 지식 혹은 앎은 세계에 대한 재현(represent)이므로 도구(언어 등)를 통해 진리를 말과 언어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내-존재'로서 유아에게 세계의 지식을 발견하거나 습득하고 재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가령 지도서의 단위활동은 '세계-내-존재'로서 유아가 지식을 재현하는 방식을 차용한다. 다음의 표는 지도서의 활동 예시이다(정선아, 2017b).

이 '자유선택활동'은 유아가 나뭇잎의 특징을 알고, 나뭇잎으로 꾸미는 미술 활동으로 '앎(나뭇잎의 특징)'을 언어적 상호작용과 예술적 표현으로 재현하게 된다. 그리고 유아는 나뭇잎의 특성을 다양하게 탐색(나뭇잎을 부수어 보기 등)할 수 있지만 앎(지식)의 범주는 이미 정해져있다. 즉, 이 놀이 활동을 통해 유아는 무엇을 알고, 학습할 지가 정해져 있으므로 유아는 이 여정을 따라가게 된다. 따라서 유아의 자유로운 방식의 재현은 허용하지 않고 제한된 범주에서만 재현을 허용한다. 또 다른 사례는 유아의 자발적 탐색과 발견을 허용하는 프로젝트(접근)의 사례이다. 나뭇가지 프로젝트의 여정에서는 나뭇가지의 길이, 두께, 색깔, 거칠기,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관목, 나무, 혹은 식물로 수학적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제망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막대기를 배치하여 분류하기, 나뭇가지를 길이에 따라 배치하는 순차 배열, 수대로 묶음을 만들어 하는 수세기, 다양한 나뭇가지의 길이를 예상하여 측정해보는 것, 막대기와 찰

흙으로 기하학적 모양을 만들면서 유아가 수학적 지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수학 지식 탐구의 범위가 주제망이다. 또한 나뭇가지와 잔가지의 출처를 알아보고, 나뭇가지(혹은 초록 나뭇가지)가 타는지? 나뭇가지는 물에 뜨는지? 초록 나뭇가지와 죽은 나뭇가지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에 관한 생물 탐색도 한다. 이러한 수학과 과학 탐색을 통해 유아는 식물(생물)의 특성과 수학 지식을 자발적으로 탐구(지식의 재현)하게 된다.

〈표 11-2-1〉 사례 1. ‘나뭇잎을 꾸며요’(동식물과 자연 만3세)

활동 방법	발문
가져온 나뭇잎을 보며 탐색한다.	- 우리가 주워 온 나뭇잎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머니(OHP 필름2장으로 겹친) 안에 나뭇잎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구성한다.	- 여기 투명한 주머니 안에 나뭇잎을 넣어보자. - 어떤 나뭇잎을 넣어서 꾸미고 싶니?
나뭇잎을 넣은 뒤 나머지 한 면을 종이테이프로 둘러서 나뭇잎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한 후, 4면을 두른 종이테이프로 둘러서 나뭇잎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한 후, 4면을 두른 종이테이프를 그리기 도구로 꾸민다.	-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이용해서 테두리로 꾸며보자. - 완성된 작품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하고 싶니?
작품을 두는 장소를 의논하여 함께 전시한다.	- 우리가 만든 작품을 어떻게 전시하면 좋을까? (모빌 등)

사례 1이 제한된 범위에서 지식의 재현이라면, 사례 2는 탐색의 여정이 세계(지식)의 복합성(수학과 생물)을 재현하게 된다. 두 가지 사례 모두 유아는 지식을 재현하는 주체이고, 세계는 객체이며 재현의 대상이다. 유아의 학습과 발달은 지식 세계의 재현(represent)으로 특히 객관적 지식의 습득으로 평가되고,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밝히는 것은 재현의 도구로 알려진 언어(language)가 주요한 학습의 도구가 된다. 즉 언어는 유아와 지식 세계를 연결하는 주요한 앎의 재현 도구가 된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교수·학습활동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다. 재현의 정도를 미리 설정하는 작업이 뒤따르게 된다(교수학습활동). 따라서 언어를 도구로 하는 학습에서 교사는 유아의 발달 수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학습을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유아를 앎의 세계로 안내해야 한다. ‘세계-내-존재’로서 유아는 지식을 발견하여 습득하는 존재이므로, 앎의 과정이 유아의 자발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유아는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보여주는 지식(교수학습활동을 통해 지식)을 밝혀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세계-의-존재'로서 유아는 삶의 주체이지만, 세계가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삶과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의존적, 상호 호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Dewey가 주장하듯 삶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삶에서의 탐색이 삶이며, 경험이 곧 교육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동과 교과를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였던 것과 매우 유사하고, 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하듯 하는 방식이 이의 대표적 예이다. 유아가 삶의 세계를 정복하거나 받아들여 세계(지식 혹은 삶)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의미를 만들어가고(자의성, 임의성 포함), 세계는 유아에게 무엇을 탐색할지의 신호를 보내고(세계의 감응성), 유아는 세계의 반응에 또 다시 자발성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세계의 의미를 변형하기도 한다. 유아에게 세계는 고정된 실체로서 삶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만남의 장인 셈이다. 세계가 유아에게 반응하면서 보여주는 세계(삶의 세계)는 유아가 만들어내는 의미이다. 성인의 지식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감각과 감성의 측면이기도 하다. 유아와 세계는 주체인 셈이다. 한 어린이집의 사례에서 나타난 "세계-의-존재"로서 유아 놀이 사례이다(정선아, 2016b).

만 2세 영아들이 모든 놀이감의 구멍에 유토를 뜯어 담는 것을 발견한 교사는 "왜 유토를 (놀이감안에) 넣는 것일까?"라고 자문하면서, 영아들이 모든 구멍에 유토 넣기를 하도록 하고, 관찰한다(영아의 유토에의 작용). 영아들은 토마스 기차 앞에 있는 구멍에, 소꿉놀이 도구안에, 보이는 모든 구멍에 유토를 집어넣는다. 영아들은 다양한 구멍에 유토를 넣어 보면서 유토를 다양한 크기로 만드는 방법을 습득하고, 다양한 크기의 유토를 용기에 넣어보면서 유토가 쌓여져 형상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아들은 유토로 사람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 간다. 유토를 작게 뜯어보던 행위는 영아가 작은 조각을 붙여서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한 것이다.



컵 속에 채워지고 있는 찰흙 조각



함께 손을 잡고 산책 가는 엄마와 아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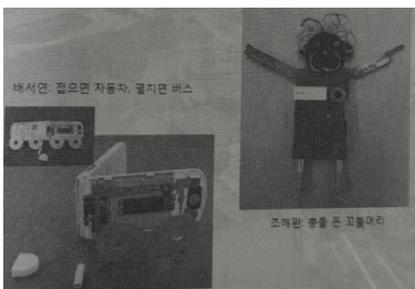
[그림 11-2-4] 유토 프로젝트: 어린이 유토 작업



승현: 이거... 좀 정신없으니까...담죠!!(만5세 큰산반)



[그림 11-2-5] 고장난 컴퓨터에서 탄생한 정크 아트(Junk art) : 원래의 용도를 이용한 재구성



이재민 : 반지- 마이크- 아이스크림- 초코칩 아이스

[그림 11-2-6] 고장난 컴퓨터에서 탄생한 정크 아트(Junk art) : 아이디어를 덧붙인 구성

새 학기에 버려지는 물건 가운데 고장난 컴퓨터를 유아들에게 제공하여 분해해보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유아들은 컴퓨터를 분해해보는 과정에서 분해물에 관한 담화를 하면서 각 부품의 쓰임새를 연상한다. 부품을 분해하고, 분류하고, 이를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부품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부품 자체가 유아의 사고와 지식을 촉발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유아의 손으로 변화되는 부품은 유아에게 또 다른 사고를 촉발한다.

이 두 사례에서 유아가 발견할 앎의 세계는 이미 존재한 것이 아니라, 유아가 세계(앎)의 의미를 구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존재’로서 유아는 세계의 물질(유토, 컴퓨터 부품)을 손과 이야기로 만나면서 세계의 반응(유토의 작은 조각이 붙어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 부품의 연결이 만들어내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감응하며 세계와의 호혜적, 의존적 관계에 높이는 경험을 한다. 유아의 손과 이야기는 세계(유토, 컴퓨터 부품)과 작용하며, 세계는 유아의 생각을 만드는 상호간 내부작용(intra-action)을 발생시켜, 유아의 앎이 발현되어 가는, 유아가 놀이에서 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즉 유아의 세계로 향한 일방적 상호작용이 아닌 세계의 유아 사고에의 적극적 작용으로 유아와 세계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앎을 구성하는 호혜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정선아, 2016b; Taguchi, 2010). 세계의 지식(앎)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고, 유아의 손과 이야기에 따라 앎은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유아-세계의 호혜적 관계는 어린이와 세계의 물질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유아의 가상놀이에서도 나타난다. 가상놀이에서 유아는 놀이감이라는 물질에 따라 놀이의 프레임을 만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발화의 특성인 대화성 즉 놀이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놀이를 유지한다. 또한 유아는 놀이감에 부합하는 놀이를 창조하면서 놀이를 재구성하면서 놀이감이 놀이를 만드는 주체로서 세계를 경험한다(정선아, 2012).

이는 Taguchi(2010)가 제안하는 세계와 유아가 얽혀서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학습이 놀이의 즉흥성과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놀이의 즉흥성(improvisation)은 대화 혹은 발화의 ‘대화성(dialogic speech)’에 의해 존재한다. 각각의 발화는 주어진 소통 영역에서 그에 선행했던 발화들에 따라 발화를 거부하기도, 확증하기도, 보충하기도 하며, 그에 기반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기도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관계한다”(Bakhtin, 2006). 발화의 대화성은 물질이 유아와 상호의존적으로 관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발화, 대화) 역시 유아에게 작용

하는 주체적 성질을 띠게 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유아의 상호작용이라 부르는 유아의 놀이는 세계에 다가가는 주체인 유아 뿐 아니라 세계에 반응하는 객체로서 유아가 동시에 존재하도록 한다. 유아의 놀이에 나타나는 능동성과 자발성은 유아-세계가 얽혀서 주도성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호혜적 관계를 일컫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계-의-존재로서 유아는 세계와 공존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놓여있게 되므로, '유아는 놀이를 통해 배운다' 보다는 '유아는 놀이에서 존재 한다' 혹은 '유아의 존재는 놀이에 있다', '놀이는 유아를 존재하게 한다'. '세계-의-존재'로서 유아는 놀이하는 유아의 모습이다. 놀이는 이러한 자발성, 능동성, 즐거움 자체이고, 유아의 존재 자체이다(정선아, 2016b).

교실에서 유아의 삶은 공부와 놀이로 분리되고, 교사의 지도 아래 공부는 하지만, 마음대로 해보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놀이의 기쁨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유아들은 "언제 놀아요?"라고 하며 자유로운 놀이 시간을 기다린다. 성인이 바라보는 지식의 습득이 없는 자유로운 놀이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자유로운 놀이에서 유아들은 삶과 삶을 잘 일구어간다. 갈등해결, 협상과 조정, 상대에 대한 경청, 대화의 기술, 배려, 설득력, 문제해결 등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능력과 의사소통 기술 등을 발달시켜가고, 세계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의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며 성인이 가르치려고 하는 개념도 습득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아는 개념의 습득보다 오류라고 불리는 유아의 의미짓기에 기쁨을 더 느낀다. 이러한 자유놀이에 교사의 진정한 상호작용과 자원의 지원이 이어진다면 유아의 자유놀이는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다. 교수·학습활동은 지식의 구조화를 위해 동원된 사탕발림이 아니라 유아의 자유로운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 계획안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 교육과정 운영의 필수요건이 된 계획안, 유아 경험의 동질화

누리과정 영역의 내용이 통합되고, 주제접근의 통합, 놀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활동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계획안 운영은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계획안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방식은 문제가 있다. 현행 교육계획안은 유아를 학습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해진 학습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유아가 자유놀이를 세계와 능동적으로 관계맺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과화되지 않은 덩어리로서 지식의 본질을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유아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낮출 수 있

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교사에게 유아 개별의 흥미와 관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안기고 있다. 계획안은 집단을 대상으로, 유아를 집단의 일원으로만 바라보게 한다. 개별 유아가 주어진 활동에 모두 참여하게 하여 모든 학습(모두 알아야 할 지식 습득)에 참여하게 하는 교육의 형평성은 이를 수 있으나, 계획안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은 개별 유아의 학습 여정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다. 즉, 개별 유아의 주체성이 살아있는 학습 집단의 장점을 살릴 수 없게 된다. 집단 활동은 개별 유아가 주체로 참여하기보다 집단의 과제를 위해 개별성을 희생해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계획안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은 결국 모든 유아가 모든 경험을 함께 한다는 것이고, 개별 유아의 흥미를 고려한 자유선택활동이라는 이름의 활동 역시 교사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선택적 자유를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다.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그 역시 제한된 선택일 뿐이고 이 역시 모든 유아가 일정 기간 안에 경험해야 하는 집단 학습의 추구이다.

결국 개별 유아가 고유의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박탈당하게 되고, 학습 집단은 교사의 수행을 점검하는 수단이 될 뿐이다. “모든 아이들이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개별 유아의 흥미를 쫓아갈 수 있지요?” 이는 학습 집단으로 개인만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 집단은 학습 집단이 아닌 집단 학습을 위한 집단일 뿐이다.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은 자유놀이이며 계획보다 놀이를 읽어주고 지원해주는 교사의 사후 지원이다. 모든 유아를 위해 놀이의 목적을 선정하고 놀이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별 유아의 놀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 안에서 학습 집단(함께 학습하면서 개인의 학습 경험이 살아있는 learning group)의 힘을 경험하게 하는 자유놀이의 운영이 필요하다.

라. 1일 4-5시간 운영의 모호성의 문제: 교과별 시수 개념의 부적절한 적용, 수업시수 개념 작동으로 인한 자유놀이의 가치 절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의 운영 시간을 45시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교과별 시수’는 유아교육의 운영 시간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시수는 학습자의 학습 시간의 적정성 뿐 아니라 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수업 시간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렇다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원칙의 시수 개념을 누리과정의 운영 원칙에서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시간 45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가 모호하다. OECD국가 유아교육에서 ‘시간’은 기관 운영시간, 기관 이용시간(무상이용시간과 이용자부담 이용 시간) 등의 개념으로 분류되고 있다. 운영시간은 기관이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용시간은 국가가 영유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간(시작연령 포함)과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이용시간을 포함한다. 따라서 운영시간은 이용시간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집의 무상 이용시간은 12시간이며,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45시간에 더하여 부모가 무상으로 이용하는 방과후 과정(국공립의 경우 방과후 과정 지원비제공)까지 총 8시간 이상이 되게 된다(이미화 등, 2012).

사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은 국가지원금(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과 부모의 부담금이 더해져서 운영되기도 한다. 현재 3-5세 유아가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국가의 무상교육은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8시간에서 12시간인 반면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포함) 누리과정 45시간과 부분 유상교육의 시간을 합친 7-8시간이다(박창현, 김상립, 2016). 따라서 유치원의 유아학비(방과후과정 포함)와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무상교육과 보육의 시간이므로 모든 시간에 기관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³⁾.

그러나 방과후과정 혹은 누리과정 이후의 보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보호’와 ‘돌봄’으로 운영되면서 기관 이용 시간은 누리과정의 ‘교육’과 오후의 ‘돌봄’으로 분리되어 가고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운영 원칙이 오전 누리과정 45시간에 제한되고 있는 결과이다. 누리과정 45시간 운영의 규정이 형평성있는 공통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아의 기관 이용 시간은 유아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부모의 요구에 의해 최소의 보호만이 이루어져도 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유아의 기관 이용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 보육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운영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현재 누리과정 운영의 교사 자격은 보육교사 2급 이상이며 누리과정 연수를 마친 자)(정선아, 2017a).

현재와 같이 교사의 수업시수로 누리과정 운영을 바라보게 된다면 자유놀이

3)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운영이 유치원정교사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유치원 방과후과정이나 종일보육 모두 보육교사 자격이상의 교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경우 누리과정 담당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자이다.

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경우 초등학교와 같은 수업시수의 개념이 유아 교육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아교육에서 교사의 수업시수는 어떤 수업을 하였는가가 아닌 유아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이 될 것이다. 자유놀이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운영 원칙은 유아교육의 고유성을 되돌리는 일이며, 초중등교육과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사의 업무시간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아가 교사와 함께 하는 시간은 모두 수업시간이며, 그렇다면 교사는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유아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를 규정해야 한다. 유치원의 경우 현재 특별활동까지 포함한다면 5-6시간일 것이며, 그 이후 시간에 수업 준비, 부모 상담, 서류 업무 등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별활동(특성화 활동) 시간에 담임교사가 유아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즉 교사의 유아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것 역시 특별활동이 수업시간일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돌봄과 보호의 시간(자유놀이 중심 운영을 전제로 할 경우) 역시 유아와 함께하는 시간이므로 이는 교사의 수업시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교사는 유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근무시간이자 수업시간이 된다. 그러나 교사의 주요한 직무는 교육을 준비하는 시간, 부모와의 대화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근무시간은 유아와 함께 있는 시간, 교육계획 및 준비 시간, 부모 상담 등의 업무로 구조화하여야 한다. 이를 전제하지 않고서 누리과정 운영 시간을 교사의 수업시간으로 제한한다면 수업은 교사가, 보호와 돌봄은 자격이 낮은 교사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착화하여 교사간의 격차, 유아의 삶의 질의 격차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다(정선아, 2017a).

3. 평가

- 문제점 진단 -

- ✓ 유아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평가의 문제: 감독, 규제를 위한, 다름이 인정되지 않는 평가
- ✓ 유아교육과정을 획일화시키는 평가의 문제: 교사중심, 계획안 중심 평가
- ✓ 객관화, 기계화된 외부자 중심의 평가방식의 문제: 과잉구조화, 단일지표체계, 다단계 연산논리에 의한 기관등급화

가. 유아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평가

1990년대 이후 영·유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부주도 기관평가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2002년 3월 보건복지부가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를 포함시키면서 국가수준의 기관평가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 제 30조에 의거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5년 평가인증이 시범운영된 이후, 2006년부터 평가인증제도가 확대·실시되었고 2017년 현재 3차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7).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유아교육법 제19조 1항)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 2007년 전국의 공사립유치원 중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가 시작되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3주기까지의 평가를 거쳐, 2017년 현재 4주기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교육부, 2017). 또한 이전 정부의 유보통합 로드맵의 과제로, 2017년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에 통합지표⁴⁾가 도입되었다(교육부, 2017). 평가로 인한 업무 과중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표를 축소하고 현장 평가의 부담을 줄였다고는 하나 문제의 본질은 여전하다.

오늘날 대다수 유아교사들은 과다 업무와 그리고 수많은 감독과 통제로 인해 소진되어 가고 있다. 유아교사들은 외부에서 주어진 기준에 맞추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문서로 증명해야 하고, 원아모집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기관과 차별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평가결과를 비롯한 기관의 각종 정보가 <유치원, 어린이집 정보공시 포털> 5)에 제공되면서, ‘디지털 파놉티콘’(한병철, 2014)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서로를 감시하고 늘 누군가에게 감시체계가 작동하는 긴장의 공간, 다른 기관과 끊임없이 비교 당하고 또 스스로

4) 2017년 현재 도입, 적용되고 있는 통합지표는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거의 동일한 요소를 평가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용어를 차별화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교육과정 - 보육과정 / 누리과정 -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 / 특수교육대상 - 장애영유아 / 교육계획 - 보육계획 / 유아 - 영유아 / 교육환경 - 보육환경 / 교육활동 - 보육활동 / 교실 - 보육실 / 교재·교구 - 활동자료 / 실외(옥외) 놀이터 - 옥외놀이터 / 학급 - 반 / 유치원 - 어린이집 / 특성화 활동 - 특별활동 / 장학 - 관찰과 지도 / 통학차량 - 등·하원차량).

5) <http://e-childschoolinfo.moe.go.kr>

비교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상시 감독관으로서 평가가 작동하고 있다.

최근 연구(홍성희, 조은래, 2017)에 나타난 교사들의 목소리가 이러한 왜곡된 평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사들에게 유아교육기관 평가는 ‘성장을 돕고’, ‘목적지로 안내하고’, ‘고진감래하는’ 기회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본질을 잃은 평가’, ‘두려움과 힘듦의 평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평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평가’와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치원과 교사들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감독 받아야 하며, 부모나 CCTV로부터 감시 받아야 하고, 동료들에게도 평가 받아야 한다(한 마디로, 국가수준 유치원 평가를 포함한 각종 평가 정책은 유치원의 생명력을 착취하고 있다.

유치원 평가의 중요한 역할은 유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사와 유치원을 지원해준다는 데 있어야 한다. 유아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는 평가, 즉 유아들의 놀이할 권리, 의미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고 도와주는 것이 평가의 기본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유아교육현장의 평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평가를 준비하느라 지친 교사들과 유치원을 양산해 내고 있다.

나. 유아교육과정을 획일화 시키는 평가지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는 평가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평가지표는 곧 유치원 운영의 바람직하다고 합의된 상태를 지시하는 것으로, 평가를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평가지표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인적, 물리적 환경을 조정하고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가지표는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또는 표면적이든 암묵적이든 간에 유아교육현장을 지표대로 움직이도록 강제한다. 현행 평가지표가 과연 유아교육 현장에 적합한지, 누구의 관점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로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 교육과정 사고에 만연해 있는 공학적 합리주의는 가르침을 지식이나 기술

-
- 6) 어린이집은 현행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4597호) 제 15조의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CCTV 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유치원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주장도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 7) 2016년 9월, 유치원교사들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그리고 동료끼리 교사를 평가하도록 하는 ‘유치원교원능력평가제’(http://www.k-teacher.or.kr) 가 도입되었다. 과

을 전달하는 단순한 재생 행위로 간주하면서 교육적 경험의 개인적인 특수성과 그것의 실존적 의미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김성훈, 2008). 이러한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아, 오늘날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이미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돌보는 사람이라기보다 교수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교수자(instructor)에 가깝다. 그리고 유치원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으로 그 이미지가 강력해지고 있다. 좋은 교사란 수업을 잘하는 교사, 아이들을 잘 통제하는 교사로 귀착되고, '좋은' 유치원은 이러한 교사가 존재하는 곳으로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 그러한 이미지를 확산시키는데 있어 각종 평가들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교사 중심, 교수 중심의 기관평가의 지향은 평가지표에 여실히 드러나 있으며, 또 그러한 평가지표로 인해 더욱 가르치는 곳,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기관 및 교사의 이미지는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⁸⁾.

현행 통합지표에서도 보듯이, 교육과정 영역 평가에서 기술하고 있는 용어들은 모두 누리과정 총론과 교사용 지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로, 교사 주도의 계획적 활동이 강조되면서 영·유아의 놀이는 소외되고 있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억압당하고 있다. 현행 지표에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협의적 교육과정', '가르침의 순간 지향 교육과정'의 개념은 배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조에 따라 미리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체제적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계획안이라는 문서가 필수 조건이 되어 실천보다도 계획안 자체가 평가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서 예시하는 계획안이 마치 표준 양식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도 문제 중 하나다.

현행 평가지표에 맞추어 모든 평가영역에서 '우수'를 받아 A등급의 유치원이 되려면, 유아와 교사가 교육과정의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유치원, 유치원이 지향하는 철학과 신념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유아가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맥락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유치원들은 표준화된 평가지표에 따라 이중 문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러한 교육과정 접근을

8) 2015년부터 교육부 주최로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을 선발하는 사업이 일례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른바 교육과정이 우수한 유치원을 추천하면 교육부가 최종 심사하여 선발, 시상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주최하는 만큼, 교육과정 우수 사례로 선발되어 공지되는 유아교육현장의 모습은 그 파급 효과가 결코 미비하지 않다. 어떠한 교육과정이 우수한 교육과정인지에 대한 국가적 공리를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 사업의 심사 매뉴얼(교육부,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2016)을 보면, 평가기준이 국가수준 유치원 평가의 내용과 유사하며, 유치원교육계획서가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에서 주요 평가 근거가 되고 있다.

포기해야 한다. 현행 유치원 평가가 함의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의미에서 다양성과 창의성, 개별 맥락의 존중과 같은 가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 유치원 평가는 평가 지표나 기준에 맞추어 현장을 구획화 하고 교육 과정을 형식화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 실제'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다(이경화, 2014). 아이들의 생명과 놀이할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과정, 학자들이나 행정가들이 제시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과정, 교사들의 철학과 신념에 따라 윤리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그러한 교육과정이 국가수준 평가로 인해 사라져서는 안 된다.

평가지표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기본적인 기준,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평가는 교육과정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하나의 방식만을 고수하면서 전국의 유아교육과정 획일화를 강제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 정부가 배부하는 교사용 참고자료의 서술 방식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평가는 유아교육기관의 학교교육과정 구성 및 재구성 능력을 저해하는 장치일 뿐이다. 오늘날 한국의 유아교육은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평가의 항목으로 명시되고, 다시 평가지표가 교육과정을 획일화시키는, 그러한 악순환의 공생 관계 위에 놓여있다.

1-1.		교육 계획 수립 및 실행	
<p>가. 교육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안을 작성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유아의 연령, 발달수준, 개인차에 맞게 수정·적용함으로써 모든 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각 학급에서는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p>나. 교육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누리과정에 근거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균형 있는 전인발달을 돕는다. ■ 교육 활동은 유아의 전인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아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놀이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는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1-1-1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및 내용을 반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안의 목표가 유아의 연령에 해당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 계획안의 내용이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확인 자료: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안 ■ 유치원 교육계획서가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편성·운영 지침을 반영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확인 자료: 유치원 교육계획서 ○ 참고자료: 시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및 장학지침 <p style="text-align: right;">* 유치원의 경우 3개의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Y로 평정</p>		
평가방법	기록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그림 11-3-1] 교육과정 평가지표의 내용 예

출처: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2017). 제4주기 2017년 유치원 평가 매뉴얼 (유치원용), p.33.

다. 객관화, 기계화된 외부자 중심 평가방식

현행 통합지표의 평가는 '정량평가 방법을 도입해서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전해진다.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는 관념이 전제가 될 때 객관성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객관성이 평가의 동등함(equality)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지만, 다양함과 주관적 경험세계를 전제로 하는 공정성(equity)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 평가지표를 객관화하겠다는 의지는 기계적 평정 과정, 증거로서의 문서 확보, 셀 수 없는 것의 수치화 등에 치중하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유치원 평가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



[그림 11-3-2] 유치원 평가의 등급화 과정

현행 유치원 평가 지표의 체계는 평가영역-평가지표-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의 과정은 단단계 연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즉 평가기준(요소)의 충족 개수(여부)에 따라 평가항목의 충족 여부가 정해지고, 평가항목의 충족 개수에 따라 평가영역의 충족 여부가 정해지며, 다시 평가영역의 충족 개수가 유치원의 평가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단계별 연산 논리는 각각의 평가기준(요소)가 등가임을 전제할 때에 가능하다. 1개 평가항목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기준 2~4가지 각각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전제 위에 그러한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양적, 산술적 계산으로 유아교육과정의 질을, 유치원 운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보다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더 우수하다는 셈법에 동의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찰이나 면담을 통해 평가기준의 충족 개수(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록물에 주로 근거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점 또한 재고해야 한다. 수없이 많은 계획서와 증빙서류들이 객관화를 지향하는 평가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서가 중요한지, 실천이 중요한지, 계획안이나 문서화 된 증거가 바람직한 교육실천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들

을 만들기 위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귀 기울일 심신의 여유가 부족하다면,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 유아의 활동자료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성격을 한 가지로 구분 짓거나 종류로 나누어 개수를 셀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활동자료 뿐 아니라 유아의 활동 또한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과 끝나는 시점이 명확히 정해진 블록 단위의 활동이 교육과정의 전부가 아니다. 즉 평가지표에는 유아의 활동자료나 활동을 비연속적인 상태의 셀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 셀 수 없는 것을 셀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한다고 해서 지표 자체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문서화된 매뉴얼에 따라 문서 증거를 만든다고, 점수제를 4단계 등급으로 바꾼다고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각각의 평가항목별로 충족 여부를 Y/N로 체크하고, 평가 항목의 '충족'비율과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적합, 개선필요)을 부여하고, 다시 평가영역의 '우수' 등급 수에 따라 A, B, C, D 등급 중 1개를 부여하는 평가체계는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 단순히 단어들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은 유치원의 다양한 맥락과 평가 상황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기계적 접근일 뿐이다. 유아와 교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무언가 주입하면 똑같이 산출해 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Ⅲ.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개선방향

1. 성격

- 개선방안 -

- ✓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성격제시의 명료화
- ✓ 유아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 제시의 명료화
- ✓ 놀이,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침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용어 삭제 및 재구성
- ✓ 5개 영역과 주제를 내용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 체계 제시

가.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성격 제시의 명료화

고시문에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성격을 명료하게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고시문의 성격 기술과 제시방식의 모호함으로 누리과정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설서와 지침서가 누리과정 고시문의 내용을 방만하게 해석하거나 유아교육 본연의 정신인 '놀이'가 학습으로 왜곡되어 해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3-5세 유아가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신체의 조건 및 지역 등에 의하지 않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해야할 최소한의 학습 내용이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의 영유아라면 누구나 경험해야할 권리를 국가가 제시하고 보장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교육내용을 말한다. 그러나 누리과정 해설서와 교사용 지침서는 누리과정의 성격을 왜곡하거나 확대 생산하게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폐지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후 현장에 제공하는 교육과정 관련 자료는 '놀이중심 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기관과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교사용 지침서는 교육부가 주도하여 일괄적으로 발간, 배포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놀이중심 교육'을 실행한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사례를 모집하여 사례집과 동영상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이란, 교사가 주도하거나, 선계획된 활동계획안 때문에 놀이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계획된 활동과 교사주도활동이 '즐거움'을 가지지 어려운 구조 때문에 유아교육의 본질이 침해당하는 현상을 말한다. 놀이중심교육과정이란 학습자가 어떻게 하든 즐거움을 가지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가진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활동계획안 평가란에 '즐거움'이 평가 요소가 될 것을 제안한다. '유아가 즐거워하였나?', '교사는 즐거움을 가졌나?' "이러한 즐거운 활동은 유의미하였나?"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일과표 마지막에 평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 있는 놀이/즐거움이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칸을 만들어서 자기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사로 하여금 이러한 즐거움이 단순한 감각적 쾌락이 아닌, 반성적 능력을 통해 스스로 '유의미'한 놀이를 자기점검할 수 있는 교수역량으로 나아가는 평가가 되도록 하고, 즐거움을 유의미한 가치와 연결하는 힘을 증폭시켜 교육과정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유아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 제시의 명료화

누리과정 고시문에 추구하는 인간상이 부재하고 교육목적과 목표가 내용지식과 중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와 인간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은 철학에 근거하여 유아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목적과 목표와 일관성 있게 진술되어야 한다.

현재 미래사회의 가치를 담은 철학에 근거한 인간상의 부재로 인하여 교육목적과 목표가 인간상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철학과 인간상의 부재로 인하여,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육목표가 5개영역의 교육내용지식의 목표와 중첩되며 5개 영역의 총합으로 목적이 제시되는 기계론적 세계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대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인간과 사회의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담은 넓은 의미의 휴머니즘과 공공의 선, 또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자연과 우주의 생명의 가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폭 넓은 인간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 놀이,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침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용어 삭제 및 재구성

누리과정 고시문의 <총론>에서 구성방향은 ‘가치’와 ‘방법’이 혼재되어 있어 목적과 방법을 혼돈하여 제시하는 오해를 낳고 있다. 고시문의 구성방향에서 1~3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4~5는 놀이를 침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삭제하고 재구성하여 ‘구성방향’으로 재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구성방향에서 1~3은 바른 인성, 창의성, 전인성, 사람과 자연 존중의 가치를 나열하고 있고, 4~5는 발달특성, 5개 영역, 초등 연계를 제시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혼돈을 줄 수 있다. 특히 발달과 영역, 초등 연계와 같은 방법론적 가치가 추구해야 할 최상의 가치와 혼돈을 빚고 있으며, 발달과 5개 영역, 초등 연계와 같은 용어들은 발달심리학에 근거하여 유아놀이를 분절하는 경향을 제시할 우려도 있다.

‘질서, 배려, 협력’은 습관교육이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와 인간상으로 재 진술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달과 초등 연계와 같은 용어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삭제하거나 재구성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과 기술, 태도’와 같은 용어들도 놀이가 가지는 통합적이고 풍요로운 성질을 살리지 못하게 할 개연성이 높다. ‘4~5시간’의 시간에 대한 용어들은 초등학교의 교과중심교육과정의 시수의 개념과 혼선을 주며, 하루 종일 놀이하는 유아들의 본연의 배움과 충돌하고 있다. 4~5시간의 누리과정의 운영시간은 유아들이 하루종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있는 동안의 모든 것이 놀이에 근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실의 공간구성을 ‘흥미영역’으로 제시하도록 기술되어 있고, 자유놀이가 ‘자유선택활동’으로 배치됨으로써 ‘흥미영역’이 교과학습 공간(learning station)으로 왜곡될 여지가 있다. 흥미영역에서 조작놀이와 같은 교재 교구도 놀이를 구조화, 인지화 시키므로 넓은 의미의 자연물 놀이감과 책, 만들기와 블록 같은 놀이감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5개영역과 주제를 내용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 체계 제시

누리과정 <각론>의 구성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5개 영역의 내용간, 내용내 지식이 충돌하거나 지식의 위계가 역진술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지식과 계열적으로 상회하는 오류를 안고 있다. 누리과정에서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는 인간상과 철학에 근거하여 재진술하고, 하위 목표와 <각론>의 교육내용이 중첩되거나 누계적 인간형으로 기술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은 내용의 구조가 누계형으로 진술되어 있고, 목적과 목표는 기술적으로 도출되도록 구조주의 교육과정의 전형적 예를 보이고 있다. 우선, 목표가 하위 내용과 상당히 중첩되어 있다. 다음으로, 누리과정의 ‘내용’과 ‘세부내용’에 관한 지식은 실제 구분하여 실행하기 어렵거나 모호하게 진술되어 있다. 또한 세부 내용간 세부 내용내 위계가 불명확 하며, 실제화 되기 어려운 유아들의 경험을 분철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내용과 세부내용은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주제통합의 교육목표와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구조주의로 짜여져 ‘놀이’를 근간으로 하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구상해야 하는 교사들을 탈속련화 시키는 준거가 되고 있다. 특히 세부내용이 지나치게 미시적이고, 방만하여 200개가 넘는 교사용지도서의 활동안을 만들어 내는 근간이 되고 있다.

유아교육과정이 아직 만 3-5세의 제한적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점차 영아를 포함하는 단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만3-5세 연령별 교육과정을 현장의 교사들이 요구한다는 점에서 연령별 차별화를 가져오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표 III-1-1>에서 보듯이 만5세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2학년과 연계 될 수 있다고 볼 때 최소한의 주제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계속성과 계열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개정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야기나누기는 초등과의 연계가 필요한 만5세에만 배정하여 만3-4세가 대집단 수업으로 왜곡되는 것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발표자의 생각중의 일부로서 더욱 자세한 내용과 형식은 유아교육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적, 목표, 하위목표는 철학을 반영하며, 내용지식과 중첩되지 않으나 연계되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은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쉽게 활동의 목표로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폭넓게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계열적으로 초등

학교 내용지식을 상회하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재구성하여 유아교육의 특성인 ‘놀이’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실행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단순화해야한다. 특히, 누리과정의 ‘세부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누리과정의 복잡한 구성체계로 인하여 놀이와 학습, 교과와 활동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5개영역과 주제를 내용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 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III-1-1〉 누리과정의 새로운 구성체계 예시

연령	3세	4세	5세	초등 1-2학년
핵심활동 (교과)	자유놀이 바깥놀이	자유놀이 바깥놀이	자유놀이 바깥놀이 (이야기나누기)	국어 수학 통합교과 (학교, 봄, 가족, 여름, 이웃, 가을, 우리나라, 겨울)
통합활동 (주제/영역/ 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유치원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족	유치원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족, 이웃, 우리나라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영역, 예술표현, 자연탐구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주. * 여기서 ‘교과’란 ‘배우거나 경험해야할 비슷한 성질의 학습내용을 담은 단위’를 의미함.

유아의 놀이를 가장 잘 살리는 ‘자유놀이’와 ‘바깥놀이’를 핵심활동(교과)로 지정하고, 자유놀이와 바깥놀이 이외에 통합 활동을 1일 1회 정도 하는 최소한의 규정과 자율권을 제안한다. 또한 연령별 교육과정을 위하여 통합 활동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대집단 활동을 통합 활동으로 제시하여 교사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누리과정의 구성에서 영역, 일과, 활동, 환경 주제가 혼선을 이루는 유아교육과정의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 즉 국어, 수학, 통합교과(학교, 봄, 가족, 여름, 가을 이웃, 우리나라, 겨울)과 같은 맥락으로 주제를 통합교과로 하는 방안이 있고, 유아교육의 핵심인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하여 바깥놀이, 자유놀이를 초등 국어와 수학에 해당하는 핵심 교과로 하는 방안도 제시해 본다(표 III-1-1참조).

<표 III-1-1>에서 보듯이 유아교육과정의 핵심활동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결국 국가수준유아교육과정을 개정하는데 핵심중의 하나라고 보인다. 핵심교과(활동)이 배치되는 시간의 단위는 곧 '교과'로서 유아들이 배워야 할 학습내용의 단위를 의미하며, 하루일과가 곧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유아교사들이 체험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모든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관계자, 전문가들에게 유아교육과정은 은폐된 것이 아닌 명료한 것이어야 하고, 놀이와 학습이 혼돈을 주어서도 안 된다. 자유놀이와 바깥놀이는 유아교육에서 놀이의 상징이고 유형이고 방법이자 배움의 주요내용이 발생하는 경험의 전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국어와 수학을 핵심교과(core curriculum)로 배치하듯 유아교육에서도 자유놀이와 바깥놀이를 핵심교과(혹은 핵심활동)로 배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유놀이와 바깥놀이는 유아들의 몸 자체가 놀이덩어리이며 생활의 전부인 점을 그대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담아주는 것이며, 학교라는 시공간적맥락을 고려하여 최적화한 놀이의 단위이자 배움의 내용으로 안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유놀이는 흥미영역을 중심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소꿉놀이나 역할놀이, 자연물 등 비지시적 열린 놀이감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깥놀이도 자유롭게 계획서 없이 유아들이 바깥에서 놀이하는 모든 것으로 포괄적으로 지시할 필요가 있다. '바깥'이라는 공간은, 교실 이외의 마당, 구석, 텃밭이나, 마을, 골목이나 시장이나 건물, 동산이나 숲 등 유아들이 유희하고 놀이할 수 있는 유의미한 모든 공간을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초등학교 핵심교과처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그날그날 유아들과 교사들이 날씨와 기분, 정황을 고려하여 의논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현재 주제중심 통합교육을 초등학교 주제에 맞게 8개 이하로 축소하거나 반드시 주제가 아니더라도 넓은 의미의 다양한 가치나, 동화, 사물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여러 학자들은 반드시 통합교육과정이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이미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다양한 통합교육과정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연계하여 주제와 내용지식을 통합적으로 기술하는 방식도 있으나, '놀이'가 근간인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을 볼 때 반듯이 초등교육과정의 연계가 교육과정의 형식의 연계만을 의미한다는 제한된 해석에 간헐 필요가 없다고 본다.

2. 운영

- 개선방안 -

- ✓ 유아의 경험이 통합되는 자유놀이 중심의 유아교육과정을 지향
- ✓ 유아교육과정 모형과 접근의 다양화 가능성 명시
- ✓ 교사-계획안 중심에서 유아-자유놀이 지원 중심으로 전환
- ✓ 교수·학습 활동으로 자유놀이 운영의 원칙만을 제안, 교사 중심의 상호작용 발문 지양
- ✓ 교사용지도서의 양을 축소하거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 제공
- ✓ 1일 45시간 누리과정 운영 시간 기술 삭제

가. 유아의 경험이 통합되는 자유놀이 중심의 유아교육과정을 지향

누리과정은 유아의 경험이 통합되는 자유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아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은 5개 영역내용의 통합과 주제 중심 활동 통합으로 '통합'의 의미를 제한적이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은 유아 경험의 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유아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자유놀이 중심의 유아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시문의 편성 25개 영역의 내용을 균형있게 통합적으로 편성한다. 고시문의 마.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고시문의 '마.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Ⅲ.편성과 운영, 3. 교수·학습 방법)를 '자유놀이 중심의 통합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자유놀이 자체가 유아 경험을 통합하므로 인위적인 5개 영역의 내용 통합을 지양한다'는 방식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고시문에 제시되어 있는 5개 영역 내용의 균형있는 통합 편성은 유아의 조화로운 발달(=신체운동·건강+의사소통+사회관계+예술경험+자연탐구)와 주제중심 활동통합(주제=언어+수학+과학+미술+음악 등)을 모두 다루어 전체를 만드는 가법적, 합산적 통합을 지향하는 구조를 하고 있다. 유아 경험의 가법적 통합을 강조한 결과, 유아 자유놀이의 통합적 성격은 경시되고, 성인에 의한 합산적, 인위적인 통합만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결론이다. 유아교육과정의 통합 편성은 유아 흥미, 경험이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가는 과정이며, 하나의 유의미한 전체가 되는 과정에 있음을 진술하여 통합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주제 중심의 활동 통합 편성은 5개 영역의 내용을 활동에 골고루 안배하는 양적인 통합을 도식화하는 방식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은 분리 독립되어 나열되고, 상호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하나의 유의미한 전체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활동이 5개 영역 내용을 균형적으로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의 도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유아의 자유놀이 자체가 유아경험이 통합되는 과정이므로 인위적인 5개 영역의 균형적 안배를 지양함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주제 중심의 통합 접근은 5개 영역 내용이 균형 잡힌 활동의 수렴적 전개가 아닌 유아의 자유놀이를 존중하는 확산적 전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나. 유아교육과정 모형과 접근의 다양화 가능성 명시

고시문에 유아교육 모형과 접근의 다양화 가능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아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은 주제 중심 접근임을 명시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모형이나 접근을 주변화시키고, 입지를 애매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시문에 유아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은 주제 중심 접근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모형이나 접근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고시문에는 숲교육, 생태교육, 공동육아, 발도르프, 레지오 에밀리아 등의 교육과정 접근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실행과 병행되기 어려운 구조를 하고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획일화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만을 단위 유치원에 강조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추후 누리과정 개편안에는 '주제 중심은 물론 다양한 접근(숲교육, 생태교육, 공동육아, 발도르프, 몬테소리,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젝트 등)으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편성안)' 수정·보완하여, 단위 유치원의 유아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지향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

다. 교사-계획안 중심에서 유아-자유놀이 지원 중심으로 전환

누리과정 운영은 교사의 계획안 중심 운영에서 유아 자유놀이 지원 중심 운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계획안에 의거한 운영', '주제 중심 활동 통합'을 위해 교사는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의 구조로는 주제 접근이 아닌, 주간계획안 수준의 주제 선정만으로도 5개 영역 통합이

가능하다는 역설 발생하고 있다. 주제 접근은 교과 성격인 교수학습활동이 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유아는 교사가 준비한 활동에 초대받는 학습의 대상이 되어 학습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아의 능동성과 주도성이 살아있는 자유놀이는 교실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고시문의 운영연간, 월간, 주간, 일일교육계획, 단위활동계획안 작성을 폐기하거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연간계획서나 월간계획서는 행사중심으로 계획하고, 주간계획서나 일일계획서는 블록 활동으로 기술하는 방식 도입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표 III-2-1〉 참조). 블록활동 중심의 일과계획표는 교사가 감당해야 할 불필요한 문서를 최소화 하고 교수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한 최소화된 교수계획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실천적 지식에 기반을 둔 교수계획안을 자신이 머릿속에서 진심으로 설계해야 하는 교육과정 전문가로 나아 갈 수 있다. 다음은 최소단의 활동계획안(일과)의 예이다. 유아교육과정의 하루일과는 활동단위를 15분 혹은 30분 단위까지 분철해야 하는 현재의 대소집단 중심의 단위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크게 나누어 놀이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교사가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생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방만한 문서작성의 소모성을 줄이고, 계획안이 가지는 미시적 구조를 제한하여 놀이가 학습으로 전환되는 파행을 막고, 획일화를 줄여갈 수 있다. 단위활동이 반드시 균형이나 주간계획안에 골고루 배치되지 않아도 되고, 바깥놀이와 같이 유아들이 즐거워하는 활동은 이미 온종일 교육을 하는 교사와 유아를 배려해 오전과 오후 하루에 2회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고시문의 운영편은 '연간(행사 위주), 월간 계획은 행사 중심으로 하고, 주간 계획서나 일일계획은 최소화한다'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다문화가정이나 발달 경계선 상에 있는 유아와 같이 직접적인 교수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의 구조화된 계획안 사용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III-2-1〉 최소단위, 블록단위 일일계획안 예시

시간	통합 활동		준비물 및 유의사항
9:00 - 12:00 (오전)	자유놀이 바깥놀이 점심 및 휴식 통합주제 바깥놀이 자유놀이 휴식 및 귀가	5개 영역 전체가 모두 실행됨	바깥놀이 때 간식준비
12:00 - 1:00			통합주제: 동화듣기
1:00 - 귀가 (오후)			귀가 시 통신문

라. 교수·학습 활동으로 자유놀이 운영의 원칙을 제안, 교사 중심의 상호작용 발문 지양

현재 교수·학습 활동으로의 놀이 중심 편성과 교수·학습 방법은 지도서의 활동 운영과 동일시되고, 유아의 삶을 공부와 놀이로 이원화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교수·학습 활동으로 자유놀이 운영의 원칙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자유놀이가 곧 유아의 학습이며, 삶을 가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유놀이 중심 운영 방식은 유아 놀이 관찰 -> 유아 놀이 지원 -> 유아 놀이 기록 방식이며, 이 과정은 곧 유아에 대한 평가를 자연스럽게 포함하게 된다.

그동안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의 실행은 교사 중심의 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유아 경험이 동질화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활동의 전개 방식(발문 형태와 구조)은 질문, 응답, 평가임. 탐문, 추론, 회상과 검증, 일대일 대응, 유목화, 명명하기, 순서짓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유아 개별 놀이의 다양성, 유아-유아간 상호작용보다 유아-교사의 상호작용이 보다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유아의 자유놀이를 관찰하고 지원하는 방식의 상호작용을 지향하고, 유아와 환경의 상호작용, 유아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마. 교사용 지도서의 양을 축소,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 제시

교사용 지도서의 양을 축소하거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도서에 담긴 활동은 12개 생활주제와 생활주제 당 4개의 소주제, 주제별 10-20개의 대소집단 활동으로 연령별 600개이다. 또한 지도서의 12개 생활주제는 초등학교 통합교과 8개 생활주제 보다 많은 구조이다. 현재 주제중심 통합교육을 초등학교 주제와 연계하여 8개 이하로 축소하거나 반드시 주제가 아니더라도 넓은 의미의 다양한 가치나, 동화, 사물 중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 사례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지역별, 기관별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실천의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바. 1일 4-5시간 누리과정 운영 시간 삭제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유치원만의 정책, 어린이집만의 교육과정 정책이 되기 어렵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과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누리과정이 운영되려면, 기관운영시간은 기관과 지역의 자원에 맞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1일 45시간 운영 기준은 모호하므로, 고시문에 제시된 1일 45시간 누리과정 운영 시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누리과정 고시문에 운영시간을 명시한 이유는 초등학교 교과별 시수 개념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업시수 개념의 작동으로 인해 교과화된 활동은 교육으로, 자유놀이는 돌봄으로 여겨 유아의 자유놀이의 가치를 저하할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과 돌봄이 이원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아의 놀이가 있고, 교사가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간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3-4시간 이상의 준비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명문화하여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돌봄이 있는 교육, 교육이 있는 돌봄을 지향하며, 이러한 유보 통합적 접근은 유아에게 유익하다.

방과후 과정도 놀이중심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젝트 또는 예술문화교육으로 심화·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방과후 과정은 기본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공교육 혁신체제 안에서 바로 설 때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누리과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방과후 과

정은 기관의 고유성과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권을 주는 것이 우선 일 것이다.

3. 평가

- 개선방안 -

- ✓ 유아와 유치원을 존중하는 평가로 패러다임의 전환
- ✓ 단위 유치원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보장하는 평가로 전환
- ✓ 단위 유치원이 주체가 되는 간주관적 평가로 전환
- ✓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되는 '평가'의 정체성 정립

가. 유아와 유치원을 존중하는 평가로 패러다임의 전환

유아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기관감독 및 규제를 위한 평가를 유아와 유치원을 존중하는 평가로 평가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관평가의 목적이 누리과정의 충실한 운영인지, 기관 운영을 점검하고자 함인지,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인지 정당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등급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평가의 목적이 유아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유치원에 대한 통제에서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 단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체계적 검토를 통한 종합적 지원 등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평가 준비에 소진된 교사들이 양산되고, 유아의 자유놀이가 축소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문서 위주가 아닌 현장의 실천중심 평가를 지향하여 놀면서 배우는 유아의 삶의 가치를 반영하고, 유아의 놀이가 살아나고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보장하는 평가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객관화, 규격화된 정량적 평가로 유아, 유치원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단일 지표체계로 평가가 작동되고 있다는 현실을 성찰하고, 다양한 유아와 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체계의 전환이 절실하다.

나. 단위 유치원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보장하는 평가로 전환

누리과정의 획일화를 심화시키는 현행 평가 체계를 기관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평가지표가 교육 실체를 단선적으로 규격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을 일률적으로 정의되는 일련의 준거로 규정하기보다는 유아, 가족, 사회문화, 지역, 어린이집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이진희, 2006). 지역사회 상황이나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영·유아교육 서비스의 다양성은 당연히 존재하고 또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행정적 편의보다 더 중요한 가치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평가지표 현장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는 내용과 평가 방식의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평가지표가 교사중심, 교수중심 교육과정으로 경도되어 유아주도의 놀이 특히 자유놀이가 경시되고 있다. 제4주기 유치원평가지표를 살펴보면, 1-3. 교수학습 방법, 1-4. 교사-유아 상호작용, 1-5. 유아간 상호작용시 교사의 역할 등에 포함된 지표의 내용이 대부분 “교사는....한다.”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7). 이를 개선하여,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발현적 교육과정, 유아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구성한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 실재가 허용되는 평가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 평가지표가 계획안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강요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제4주기 유치원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1-1.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을 작성한다.” 1-2. 일과 운영 “계획에 따라운영한다.”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교육부, 2017). 이러한 기술들은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과정’,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 지표 내용 축소 및 변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인정하지 않고, 고시문의 총론 <편성과 운영>, 「교사용지도서」의 내용과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교사 주도의 계획적인 활동을 강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사와 교수중심 평가에서 유아의 놀이(자유놀이)가 중심이 되는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단위 유치원이 주체가 되는 간주관적 평가로 전환

현행 객관화, 기계화된 외부자 중심의 평가에서 단위 유치원이 주체가 되는 간주관적 평가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즉, 지표체계가 200여개의 평가기준, 77개 항목, 20개 지표, 4개 영역으로 과잉 구조화되고 있으며, 다단계 가감논리에 따라 유치원을 등급화하고 있으며, 평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문서가 많고 중복적이며, 이러한 문서에 치중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평가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회현상, 사회적 실재에는 '단일한 실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에 의해 구성된 다양한 실재'가 존재한다(Dorr-Bremme, 1990)는 관점에 합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치로 나타낼수록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지표의 상황은 그 해석의 범위가 좁아지고 정형화, 규격화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평가에 참여하고 관여되는 사람들 간의 공유된 이해, 즉 간주관적 이해(inter-subjectivity)이다.

간주관적 이해는 개방적, 상호적 관계에 기반을 둔 진정한 의사소통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파편화된 정량적 평가지표를 대신하여 단순히 정성적 지표의 수를 늘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의 성격이 어떠하며 그러한 성격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호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활동과 자료를 등급화 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것이 매뉴얼에 기준을 자세하게 제시한다고 해서 그러한 지표와 기준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소수의 전문가 자문위원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영유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다수 교사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으로는 개방적, 상호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유치원 자체평가의 실질적 권한 보장 및 외부자 평가 권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유아, 가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유치원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의 다양화하고 지표 선택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증빙문서 및 기록 중심평가의 최소화하고, 기관의 등급화와 평가결과의 정보공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재고하여 혁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라.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되는 ‘평가’의 정체성 정립

현행 누리과정 고시문에 제시된 ‘평가’의 성격이 다소 모호하므로 문서상에 나타난 ‘평가’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수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평가’는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목적, 내용, 방법의 방향성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에 비해, 누리과정에서는 평가의 목적(지향)을 진술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평가를 ‘누리과정 운영 평가’와 ‘유아 평가’로 이분화 하여 제시하고 있어, 고시문에서 지시하는 ‘평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체성이 모호한 실정이다. 또한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맥락을 고려한 평가방법 적용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계획안 분석’을 누리과정 평가 방법으로 제시한 점이 그러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단위 유치원)의 전제 하에 단위 유치원에서 수행하는 평가의 목적, 평가의 내용, 평가방법을 방향성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평가의 목적을 ‘유치원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교육을 질 개선을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수행한다’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또한 평가의 내용도 구체화하기보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유아교육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유아의 발달을 비롯하여 유아를 둘러싼 인적·물적 환경을 평가한다’로 방향성을 중심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방법도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과 유치원의 사회문화적 맥락, 평가의 목적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한다’고 기술함으로써 평가방법의 다양성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1. 정책방향

가. 유아의 자유놀이가 살아나는 자율적 교육과정으로의 누리과정 개편

누리과정의 혁신은 유아의 자유놀이를 존중하고, 분권과 자치를 강조하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유아의 자유놀이를 중심으로 가치와 방향을 명료화 하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최소한으로 제시해야한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 성격·운영·평가 체제 혁신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의 개편을 제안한다.

나. 기관단위 유아교육과정의 자율권 확립

개별 기관단위 교육과정 자율권을 고시문에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고시문 총론의⁹⁾구성방향⁹⁾은 영·유아중심,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의 지향과 개별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구성 및 실천의 자율적 권한을 언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테면,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개별 기관, 영·유아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영·유아가 행복한 교육과정’, ‘개별 기관과 지역사회, 유아·교사·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과 같은 내용이 적시될 필요가 있다. 국가 교육과정이 너무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별 기관의 교육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단위의 다양한 교육과정 실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이자 최소의 보편적 지침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9) 현행 누리과정 총론에 제시되어 있는 ‘구성방향은 아래와 같다(교육부, 2015).

1.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2.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3.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4. 만 3~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한다.
5.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6.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 누리과정의 간명화,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실천의 다양화 강화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은 영·유아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와 영·유아기에 배워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내용 요소들을 표명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행 누리과정의 목표체계와 내용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수정, 축소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단계 목표체계 대신 영·유아기에 길러야 한다고 합의되는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역량¹⁰⁾을 제시하는 방식과 현행 다단계 내용체계 대신에 그러한 역량을 기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험을 제시하는 식으로, 교육과정의 구조를 간명화,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reconstruction/ transformation)은 교사가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을 자신만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허영주, 2011). 유아교사로 대표되는 유아교육현장의 실천가들의 과제는 바로 교육과정의 해석자로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현장의 실천가들이 해석자가 되어, 누리과정 문서나 교단지원자료를 교사들이 해석해야 할 텍스트로 받아들이고 재구성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전제로, 다양한 배경의 유아들, 지역과 기관의 맥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 및 학급수준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라. 유아의 자유놀이+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유아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제 마련

유아의 자유놀이+교사와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과 보조교사 지원 체제 개편을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과정 운영의 구조적 질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시범운영(혁신유치원 혹은 교사 실천 사례 발굴 중심)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의 피로감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원장의 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여, 자유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0) 2015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은 초·중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역량, 즉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 개념의 도입은 교수자 중심의 사고에서 학습자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 정책제언

가. 누리과정 혁신을 위한 정책 로드맵

<p>로드맵 이미지</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누리과정 혁신 방안</p> </div>		
<p>비전</p>	<p>유아의 자유놀이가 살아나는 자율적 교육과정을 추구한다.</p>		
<p>영역</p>	<p>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성격</p>	<p>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운영</p>	<p>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평가</p>
<p>목표</p>	<p>✓ 유아의 자유놀이가 살아나고 유치원 단위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을 정립한다.</p>	<p>✓ 유아의 자유놀이를 지원하는 실천중심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교원 역량을 강화한다.</p>	<p>✓ 유아의 자유놀이와 유치원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한다.</p>
<p>실행과제</p>	<p>✓ 교육과정 개정안 수립 - 자유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 - 교육과정 자율권 보장 명시 ✓ 교육과정 개정안 고시</p>		<p>✓ 유치원평가 개정안 마련</p>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준 교육과정 지침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운영지침서 개발 및 배포 ✓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안 마련 ✓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평가 개정안의 시범 적용 및 보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교육과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운영사례집 개발 및 배포 ✓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안의 법제화 ✓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유치원평가에 따른 5주기 평가 실시

나. 누리과정 혁신을 위한 영역별 목표 및 과제, 개선방향

1) 누리과정의 성격 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 및 과제, 개선방안

영역 - 비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정체성 확립 - 유아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국가 교육과정
목표	<p>유아의 놀이가 살아나고 유치원 단위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을 정립한다.</p>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1. 교육과정 개정안 수립 I-2. 교육과정 개정안 고시 I-3. 개정 교육과정 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시문의 체계 정립을 통한 교육과정의 성격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지향하는 유아교육의 지향, 비전 제시 - 학교수준 교육과정 자율권(편성, 운영) 제시 - 초·중등교육과정 고시문 체계와의 일관성 유지 2.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의 간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보편적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 제시 - 교육내용의 성격 정립(목표/경험/개념) 3. 편성·운영의 기본 원칙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보편적, 기본 원칙 제시

영역 - 비전 -	II. 유치원 교육과정의 자율권 보장 - 유아교육 공동체의 교육철학이 실현되는 유치원 교육과정
목표	단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과제	II-1. 교육과정 자율권 명시 II-2. 지역수준 교육과정 지침안 수립

2) 누리과정의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 및 과제, 개선방안

영역 - 비전 -	III. 교단지원자료의 실천성 제고 - 다양한 교육 실천을 도모하는 교단지원자료
목표	교육과정 실천 중심 교단지원자료를 개발한다.
과제	<p>III-1.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운영지침서 개발 및 배포 III-2.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운영사례집 개발 및 배포</p> <p>1. 교단지원자료의 성격에 따른 명명 및 구성내용 전환 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고시문을 풀어 설명하는 형태로, 현장에서의 활용도 낮음) -> 교육과정 운영 지침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반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교수-학습방법 및 환경 등에 대한 안내) -> 여러 종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서 발행 가능성 고려 (예.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침서, 숲 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침서, 발현적 교육과정 운영 지침서 등)</p> <p>②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고시문 내용영역별 활동 예시 제시하는 형태로, 교사용지도서와의 관계성 모호 및 현장 활용도 낮음) -> 불필요함</p> <p>③ 3-5세 연령별 교사용 지도서 (교사주도형 활동 중심 / 주제중심 통합 조직 방식의 획일적 내용요소 조직 방식만 제시 / 고시문의 내용요소와의 논리적 관련성 낮음 /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하지 못함 / 활동의 발달 적합성에 대한 검증 부실) ->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지향, 목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 제시) -> 여러 종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 발행 가능성 고려 (예.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 숲 기반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 발현적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 등)</p>

영역 - 비전 -	IV. 교원의 교육과정 역량 강화 - 교육과정 구성과 실천 역량을 갖춘 교원
목표	교육과정 자율적 운영을 위한 교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한다.
과제	IV-1.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안 마련 IV-2.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체계 마련 IV-3.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안의 법제화 IV-4.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3) 누리과정의 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 및 과제, 개선방안

영역 - 비전 -	V. 유아교육과정 평가의 책무성 제고 -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평가
목표	단위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과제	V-1. '유치원평가' 개정안 마련 V-2. '유치원평가' 개정안의 시범 적용 및 보완 V-3. 개정 '유치원평가'에 따른 5주기 평가 실시 1. 평가지표 개정안 마련 - 평가체계 수립 - 평가지표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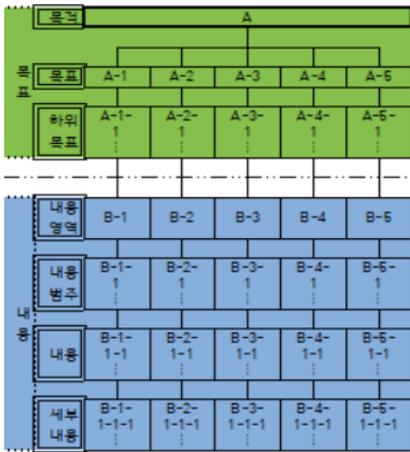
다. 누리과정 혁신을 위한 구체적 개선안

1. 유아의 놀이가 살아나고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성격] 재정립	
문제점	개선(안)
<p>1.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고시문의 성격 부재와 모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의 성격 부재로 인하여 누리과정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혼돈을 야기함 - 해설서와 지침서가 누리과정 고시문의 내용을 방만하게 해석하거나 유아교육 본연의 정신인 '놀이'가 학습으로 왜곡되어 해석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짐 	<p>1. 고시문에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성격을 명료하게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함</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 유아교육과정 (누리과정)은 3세 - 5세 (0세 - 5세)의 영유아가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신체의 조건 및 지역 등에 의하지 않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해야할 최소한의 학습 내용이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의 영유아라면 누구나 경험해야할 권리를 국가가 제시하고 보장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교육내용을 말함</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해설서와 교사용 지침서는 누리과정의 성격을 왜곡하거나 확대 생산하게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폐지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추후 현장에 제공하는 교육과정 관련 자료는 '놀이중심 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기관과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교사용 지침서는 교육부가 주도하여 일괄적으로 발간, 배포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놀이중심 교육'을 실행한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사례를 모집하여 사례집과 동영상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함
<p>2. 누리과정 고시문에 추구하는 인간상이 부재하고 교육목적과 목표가 내용지식과 중첩되는 문제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사회의 가치를 담은 철학에 근거한 인간상의 부재로 인하여 교육목적과 목표가 인간상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철학과 인간상의 부재로 인하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육목표가 5개영역의 교육내용지식의 목표와 중첩되며 5개 영역의 총합으로 목적이 제시되는 기계론적 세계관의 문제를 안고 있음 	<p>2. 현대사회와 인간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은 철학에 근거하여 유아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명료하게 제시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목적과 목표와 일관성 있게 진술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구하는 인간상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대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인간과 사회의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담은 넓은 의미의 휴머니즘과 공공의 선, 또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자연과 우주의 생명의 가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폭넓은 인간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p>3. 누리과정 고시문의 <총론>에서 구성방향은 '가치'와 '방법'이 혼재되어 있어 목적과 방법을 혼돈하여 제시하는 오해를 낳고 있음</p>	<p>3. 고시문의 구성방향에서 1~ 3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4~5는 놀이를 침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삭제하고 재구성하여 '구성방향'으로 재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방향에서 1-3은 바른 인성, 창의성, 전인성, 사람과 자연 존중의 가치를 나열하고 있고, 4-5는 발달특성, 5개 영역, 초등 연계를 제시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혼돈을 줄 수 있음 - 발달과 영역, 초등 연계와 같은 방법론적 가치가 추구해야할 최상의 가치와 혼돈을 빚고 있음 - 발달과 5개 영역, 초등 연계와 같은 용어들은 발달심리학에 근거하여 유아놀이를 분절하는 경향을 제시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 배려, 협력은 습관교육이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와 인간상으로 재진술되는 것이 바람직함 - 발달과 초등 연계와 같은 용어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삭제하거나 재구성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함
<p>4. 고시문의 <총론>에는 초등학교의 교수학습방법과 혼선을 야기할 용어들이 제시되어 있어 유아교육의 본연의 놀이중심 교육을 침해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과 기술, 태도와 같은 용어들은 놀이가 가지는 통합적이고 풍요로운 성질을 살리지 못하게 할 개연성이 높음 - 4~5시간의 시간에 대한 용어들은 초등학교의 교과중심교육과정의 시수의 개념과 혼선을 주며, 하루 종일 놀이하는 유아들의 본연의 배움과 충돌하고 있음 - 교실의 공간구성을 흥미영역으로 제시하여 자유놀이가 자유선택활동이 되며, 교과학습 공간(learning station)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음 	<p>4. 고시문의 <총론>에서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을 오해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교수학습 관련 용어들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삭제할 내용 예</p> <p>2. 운영 가.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나. 실내외 환경을 다양한 흥미영역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p> <p>3. 교수학습 방법 다.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하여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하도록 한다.</p> </div>
<p>5. 누리과정 <각론>의 구성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5개 영역의 내용간, 내용내 지식이 충돌하거나 지식의 위계가 역진술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지식과 계열적으로 상회하는 오류를 안고 있음</p>	<p>5. 누리과정에서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는 인간상과 철학에 근거하여 재진술하고, 하위 목표와 <각론>의 교육내용이 중첩되거나 누계적 인간형으로 기술되지 않도록 함</p>

<표1> 누리과정 내용지식의 구조



- 내용의 구조가 누계형으로 진술되어 있고, 목적과 목표는 기술적으로 도출되도록 구조주의 교육과정의 전형적 예를 보이고 있음
- 목표가 하위 내용과 중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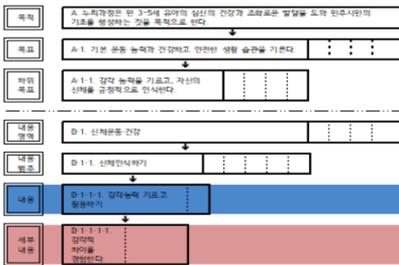


표2> 누리과정 내용범주, 내용, 세부내용의 구조

- 푸른색의 내용지식은 붉은색의 세부내용지식과 실제 구분하여 실행하기 어렵거나 모호하게 진술되어 있음
- 세부 내용간 세부 내용내 위계가 불명확하며, 실제화 되기 어려운 유아들의 경험을 분철하는 위험을 안고 있음
- 내용과 세부내용은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주제통합의 교육목표와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표1>의 초록색의 목적, 목표, 하위목표는 철학을 반영하며, 푸른색의 내용지식과 중첩되지 않으나 연계되도록 기술

- <표1>에서 푸른색의 범주와 내용은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쉽게 활동의 목표로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폭넓게 최소화 함

- <표2>에서 계열적으로 초등학교 내용지식을 상회하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재구성하여 유아교육의 특성인 '놀이'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실행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단순화 함

- <표3>의 붉은색의 세부내용은 삭제함

- 구조주의로 짜여져 '놀이'를 근간으로 하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구상해야 하는 교사들을 탈숙련화 시키는 준거가 되고 있음

<표3> 누리과정 교육내용 구성현황

내용영역	내용 분포	내용			세부내용		
		3세	4세	5세	3세	4세	5세
신체운동·건강	5	14	14	14	31	32	33
의사소통	4	10	11	11	17	26	26
사회관계	5	11	12	12	20	28	29
예술경험	3	10	10	10	17	20	20
자연탐구	3	11	12	12	18	24	30
전체	20	56	59	59	103	129	137
		174			369		

- 세부내용이 지나치게 미시적이고, 방만하여 200개가 넘는 교사용지도서의 활동을 만들어 내는 근간이 되고 있음

5. 누리과정의 복잡한 구성체제로 인하여 놀이와 학습, 교과와 활동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음

<표 4> 유아교육과정의 복잡한 구성체계

유아교육과정 (주제중심통합교육)					효율교육과정 교과중심 - 주제중심
예비교과영역 내외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교사본	교사본 지도서	1차부 일과	관영구성	교과과정 교과서 일과시간표
유아본학 유아수학 유아과학 유아사회 유아미술 유아음악 유아놀이 유아체육 유아정보교육 유아교육과정 유아건강 유아교과서본 유아교육기본	5개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기본 생활 습관) 포은보육과정 표준보육과정 (11개/15개)	유치원과 나 호식을과거엔 가족 우리 동네 교공기관 생활도구 우리나라 세계여러나라 관경과 생활 봄, 여름, 가을, 겨울 (11개/15개)	자유선택 이야기 나누기 동화듣기 악 종류활동 신체활동 미술놀이 게임 오리	종다영역: 역할놀이 관악영역 만어영역 수조각 종류영역 미술영역	국어 수학 통합교과 (학교, 봄, 가을, 여름, 겨울) 이웃, 가을, 우리나라, 겨울)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중심	영역중심	주제중심	활동중심	교과중심	교과중심

- 교과와 영역, 학습과 놀이가 혼재되어 있음
- 5개영역의 교육과정 내용지식과 주제중심의 활동계획안의 목표지식을 이원화하는 구조를 가짐
- 대소집단 활동은 교과교육을 은폐하고 놀이를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게 하는 오해를 주고 있음
- 생활주제가 초등학교 주제 8개보다도 많음

5. 5개영역과 주제를 내용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 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예시> 새로운 누리과정 구성체계

연령	3세	4세	5세	초등 1-2학년
핵심활동 (교과)	자유놀이 바깥놀이	자유놀이 바깥놀이	자유놀이 바깥놀이 (이야기나누기)	국어 수학 통합교과 (학교, 봄, 가을, 여름, 겨울) 이웃, 가을, 우리나라, 겨울)
통합 활동 (주제/영역/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유치원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족	유치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웃, 우리나라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영역, 예술표현, 자연탐구			

- 유아의 놀이를 가장 잘 살리는 '자유놀이'와 '바깥놀이'를 핵심활동(교과)로 지정할 것을 제안
- 자유놀이와 바깥놀이 이외에 통합 활동을 1일 1회 정도 하는 최소한의 규정과 자율권을 제안
- 연령별 교육과정을 위하여 통합 활동을 단계적으로 제시함
- 대집단 활동을 통합 활동으로 제시하여 교사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함

2. 유아의 놀이가 살아나고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운영] 개선	
문제점	개선(안)
<p>1. 유아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은 5개 영역 내용의 통합과 주제 중심 활동 통합으로 '통합'의 의미를 제한적이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편성 2. 5개 영역의 내용을 균형있게 통합적으로 편성한다.</p> <p>교수·학습 방법 마.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누리과정 고시문></p> </div> <p>- 5개 영역 내용의 균형있는 통합 편성은 유아의 조화로운 발달(=신체.건강+의사소통+사회관계+예술경험+자연탐구)와 주제중심 활동통합(주제=언어+수학+과학+미술+음악 등)를 모두 다루어 전체를 만드는 가법적, 합산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 유아 경험의 가법적 통합을 강조한 결과, 유아 자유놀이의 통합적 성격은 경시되고, 성인에 의한 합산적, 인위적인 통합만을 강조하게 되었음.</p> <p>- 주제 중심의 활동 통합(주제 접근) 편성은 5개 영역의 내용을 활동에 골고루 안배하는 양적인 통합을 도식화하는 방식으로 전락하고 있음.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은 분리 독립되어 나열되고, 상호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하나의 유의미한 전체가 되지 못하고 있음. 활동이 5개 영역 내용을 균형적으로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의 도식으로 전락.</p> <p>2. 유아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은 주제 중심 접근임을 명시하여(1.에서 제시) 다양한 교육과정 모형이나 접근을 주변화시키고, 입지를 애매하게 하고 있음.</p>	<p>1. 유아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은 유아 경험의 통합에 있으므로 유아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자유놀이 중심으로 유아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편성(안) -자유놀이 중심의 통합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자유놀이 자체가 유아 경험을 통합하므로 인위적인 5개 영역의 내용 통합을 지양한다.</p> </div> <p>- 유아교육과정의 통합 편성은 유아 흥미, 경험이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가는 과정이며, 하나의 유의미한 전체가 되는 과정에 있음을 진술하여 통합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p> <p>- 유아의 자유놀이 자체가 유아경험이 통합되는 과정이므로 인위적인 5개 영역의 균형적 안배를 지양함을 적시할 필요가 있음.</p> <p>- 주제 중심의 통합 접근은 5개 영역 내용이 균형 잡힌 활동의 수렴적 전개가 아닌 유아의 자유놀이를 존중하는 확산적 전개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p> <p>2. 유아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은 주제 중심 접근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모형이나 접근으로 기능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p>

-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실행은 주제 접근임을 명시하여 교육과정의 다양한 모형이나 접근을 주변화시키고 있음. 예를 들어 숲교육, 생태교육, 공동육아, 발도로프, 레지오 에밀리아 등의 교육과정 접근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실행과 병행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획일화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만을 단위 유치원에 강조하고 있음.

편성(안)

- 주제 중심은 물론 다양한 접근(숲교육, 생태교육, 공동육아, 발도로프, 몬테소리, 레지오에밀리아, 프로젝트 등)으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주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은 물론 다양한 접근(숲교육, 발도로프,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젝트 접근법 등)에서 가능성을 적시
- 단위 유치원의 유아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지향함.

3. '계획안에 의거한 운영', '주제 중심 활동 통합'을 위해 교사는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

3. 교사의 계획안 중심 운영에서 유아 자유놀이 지원 중심 운영으로 전환

운영

-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교수·학습 방법

-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누리과정 고시문>

운영(안)

- 연간(행사 위주), 월간 계획은 행사 중심으로 하고, 주간 계획서나 일일 계획은 최소화한다.

5개 영역	교사용 지도서	기관 교육 계획
·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생활주제 (개념화)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제	주간 계획
	소주제 (단위)활동	일일 계획

<표 5개영역, 교사용지도서, 교육계획의 관계>

- 주제 접근이 아닌, 주간계획안 수준의 주제 선정만으로도 5개 영역 통합이 가능하다는 역설 발생
- 주제 접근은 교과 성격인 교수학습활동이 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됨.
- 유아는 교사가 준비한 활동에 초대받는 학습의 대상이 되어 학습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유아의 능동성과 주도성이 살아있는 자유놀이는 교실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연간, 월간, 주간, 일일교육계획, 단위활동계획안 작성을 폐기하거나 최소화 하고, 연간계획서나 월간계획서는 행사중심으로 계획하고, 주간계획서나 일일계획서는 블럭 활동으로 기술하는 방식 도입(아래 참조)

단, 다문화가정이나 발달 경계선 상에 있는 유아와 같이 직접적인 교수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의 구조화된 계획안 사용도 허용

<일일 계획안 예시>

시간	통합 활동	준비물 및 유의사항
9:00 - 12:00 (오전)	자유놀이 바깥놀이 점심 및 휴식 통합주제 바깥놀이 자유놀이 휴식 및 귀가	바깥놀이 때 간식준비
12:00 - 1:00		통합주제: 동화듣기
1:00 - 귀가 (오후)		귀가 시 통신문

4. 놀이 중심 편성과 교수·학습 방법은 지도서의 활동 운영과 동일시되고, 유아의 삶을 공부와 놀이로 이원화하고 있음

편성
 다.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를 중심으로 편성한 다.

교수·학습 방법
 가. 놀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 '놀이 중심의 편성', '놀이 중심 교수·학습 활동', '흥미 중심 활동'은 지도서의 활동을 기관 교육 계획(일일 계획)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 지도서의 활동은 교과 성격의 자유선택 활동과 대소집단 활동이며, 활동은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의 도구화 전략에 불과함.
- 놀이 중심 운영은 지도서의 활동 예시로 동일시되어, 놀이는 지식 전달의 수단일 뿐 유아의 자유놀이의 본질은 상실됨
- 유아의 삶을 공부와 놀이로 분리시키고 있음. "우리 언제 놀아요?"를 질문하는 유아.

5.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은 교사 중심의 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유아 경험의 동질화를 지향하고 있음.

- 활동의 전개 방식(발문 형태와 구조)은 질문, 응답, 평가임. 탐문, 추론, 회상과 검증, 일대일 대응, 유목화, 명명하기, 순서짓기 등으로 이루어짐.
- '사고하는 유아만을 격려하고, 진심으로 유아와 소통하는 상호작용이 부재. 유아 경험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음.
- 자유선택활동과 대소집단 활동은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수활동이 되어 유아의 경험을 동질화, 전체화하고 있음.

4. 교수·학습 활동으로 자유놀이 운영의 원칙만을 제한함

- 자유놀이가 곧 유아의 학습이며, 삶을 가시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자유놀이 중심 운영 방식은 유아 놀이 관찰 -> 유아 놀이 지원 -> 유아 놀이 기록 방식이며, 이 과정은 곧 유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게 됨

예) 기록 예시

선생님! '정' 좀 이상해요

행복한 해피바기반 13세 유아 : 정동연
 교사 : 황유주, 김영연 일시 : 2017. 03. 1-2주



(사회과실 관찰요소)
-원시(시동) 보기 7페이지 관찰 적어

놀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쓰고 한글글씨로 이름을 만들었던 동점이 놀이에 접근 할 때 한글글씨로 만든 '정'의 모양에 놀 아주시 선생님께 물어보는 이름표와 교실에 있는 이름표를 확인하고 손에서 교환하기 시작한다.
 동점 : ".....를 옆으로 조금 밀어주세요." "이 편다."
 동점 : (다시 ".....를 향해 차피로 밀었다.)

선생님! 정 좀 이상해요?
 교사 : 그림이 어색하? 그림 (교실에 있는) 이름표를 보고 다시 확인해볼까?
 (이 때 교사는 어떤 지적 이상점이 발견되지 않음)
 동점은 이름표를 보고 한글글씨를 계속 움직이더니 갑자기 목도에 있는 서명상에 다녀온다. 서명상에 있는 이름표를 확인 하고 다시 온다.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표정처럼 패시백으로 표현되어 있는 ".....로 이름을 만들었다. 손으로 '정'과 '프' 닮았어 있는 ".....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한 동점은 다음날 고민하지 않고 바로 표현되 되어 있는 '정'을 만들었다.
 '정'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쓰기를 시작했던 동점은 이제는 '정'을 쓴 후 '정'을 쓰기 시작했다. 그 후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쓰기 시작 하면서 한글의 '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과 "....."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제는 동점까지 한글글씨를 통해서 자물과 모음을 자유롭게 배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기회를 제공하도록 도움 것이다.

<부모님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5. 교사와 유아의 발문을 지양하고, 교사는 유아의 자유놀이를 관찰하고 지원하는 방식의 상호작용을 지향

- 유아와 환경의 상호작용, 유아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교사 중심의 상호작용 지양
-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유아가 차이를 이해하고, 집단 지성을 경험하는 장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자유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놀이 관찰-놀이지원-놀이기록(평가)이므로, 평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가 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개별 놀이의 다양성, 유아-유아간 상호작용보다 유아-교사의 상호작용만이 강조되고 있음 	
<p>6.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서에 담긴 활동은 12개 생활주제와 생활주제 당 4개의 소주제, 주제별 10-20개의 대소집단 활동으로 연령별 600개임. 이는 180일 교육일수에서 충분히 활용되기 어려움 - 지도서의 12개 생활주제는 초등학교 통합교과 8개 생활주제 보다 많음 	<p>6. 교사용지도서의 양을 축소하거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동영상 활용)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주제중심 통합교육을 초등학교 주제와 연계하여 8개 이하로 축소하거나 반드시 주제가 아니더라도 넓은 의미의 다양한 가치나, 동화, 사물 중심으로 통합 - 교사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 사례 아카이브 구축
<p>7. 1일 4-5시간 운영의 모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운영시간의 명시는 초등학교 교과별 시수 개념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것임 - 수업시수 개념의 작동으로 인해 교과화된 활동은 교육으로, 자유놀이는 돌봄으로 여겨 유아의 자유놀이 가치가 저하됨 - 교육과 돌봄이 이원화되고 있음. 	<p>7. 1일 4-5시간 누리과정 운영 시간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놀이가 있고, 교사가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간임을 명시함 - 교사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3-4시간 이상의 준비 시간이 보장되어야 함. 이를 명문화하여 법제화할 필요함. - 돌봄이 있는 교육, 교육이 있는 돌봄을 지향. - 방과후 과정도 놀이중심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젝트 또는 예술문화교육으로 심화·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p><정책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교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함. - 교사 대 유아 비율의 축소 혹은 보조교사 배치(국공립 유치원의 행정인력 배치 필요) -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시범운영(혁신유치원 혹은 교사 실천 사례 발굴 중심)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의 피로감을 줄일 필요 있음. - 교사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장의 리더십이 필요함. 예를 들어 원장은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의 가치와 중요성을 교육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3. 유아의 놀이가 살아나고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국가수준 [평가 체제] 정립 [유치원 평가]	
문제점	개선(안)
<p>1. 유치원 평가의 목적이 유아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기관 감독 및 규제를 위한 평가로 위치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치원 평가 목적(누리과정의 충실한 운영, 유치원 운영 점검,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의 정당성이 부족함. 누구를,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그리고 유치원을 등급화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리 및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유아의 놀이가 축소된 교육과정, 유치원 준비에 소진된 교사를 양산하고 있음 - 객관화, 규격화된 정량적 평가로 유아, 유치원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단일 지표 체계로 평가를 작동시키고 있음 	<p>1. 유아와 유치원을 존중하는 평가로 「유치원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목적이 유아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유치원에 대한 통제에서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예: 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 단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체계적 검토를 통한 종합적 지원) - 문서 위주가 아닌 현장의 실천중심 평가를 지향하여 놀면서 배우는 유아의 삶의 가치를 반영하고, 유아의 놀이가 살아나고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보장하는 평가로 전환 - 다양한 유아와 유치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로 전환
<p>2. 평가가 유치원 교육과정의 획일화를 심화시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가 교사중심, 교수중심 교육과정으로 경도되어 유아주도의 놀이 특히 자유놀이가 경시되고 있음 (제4주기 유치원평가 지표, 1-3. 교수학습 방법, 1-4. 교사-유아 상호작용, 1-5. 유아간 상호작용시 교사의 역할 등에 포함된 지표의 내용이 대부분 “교사는...한다.”로 제시) - 교육과정 평가지표가 계획안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강요하고 있음 (제4주기 유치원평가 지표, 1-1.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을 작성한다.” 1-2. 일과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등)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인정하지 않고, 고시문의 총론 <편성과 운영>, 「교사용지도서」의 내용과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교사 주도의 계획적인 활동을 강제하고 있음 	<p>2. 단위 유치원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보장하는 평가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발현적 교육과정, 유아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구성한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 실재가 허용되는 평가로 전환 -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란 전제 하에 ‘교육과정’,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 지표 내용 축소 및 변경 - 교사와 교수중심 평가에서 유아의 놀이(자유놀이)가 중심이 되는 평가로 전환

<p>3. 객관화, 기계화된 외부자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체계가 200여개의 평가기준, 77개 항목, 20개 지표, 4개 영역으로 과잉 구조화되어 있음 - 다단계 가감논리에 따라 유치원을 등급화 하고 있음 - 평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문서가 많고 중복적이며, 이러한 문서에 치중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p>3. 단위 유치원이 주체가 되는 간주관적 평가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적, 상호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유치원 자체평가의 실질적 권한 보장 및 외부자 평가 권한 최소화 - 다양한 유아, 가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유치원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의 다양화 및 지표 선택권 보장 - 증빙문서 및 기록 중심평가의 최소화 - 유치원의 등급화와 평가결과의 정보공시의 합법성, 정당성 재고
<p>【3-5세 누리과정 평가】</p>	
<p>문제점</p>	<p>개선(안)</p>
<p>1. 누리과정 고시문에 제시된 ‘평가’의 성격이 모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평가’는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목적, 내용, 방법의 방향성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이에 비해 누리과정에서는 평가의 목적(지향)을 진술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구체화 하고 있음 - 평가를 ‘누리과정 운영 평가’와 ‘유아 평가’로 이분화 하여, 고시문에서 지시하는 ‘평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체성이 모호함 -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맥락을 고려한 평가방법 적용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음(예. 계획안 분석을 누리과정 평가 방법으로 제시함) 	<p>1.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되는 ‘평가’의 정체성 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단위 유치원)의 전체 하에 단위 유치원에서 수행하는 평가의 목적, 평가의 내용, 평가방법을 방향성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기술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p> <p>가. 유치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확인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수행한다.(평가 목적)</p> <p>나. 유치원은 유아교육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유아의 발달을 비롯하여 유아를 둘러싼 인적·물적 환경을 평가한다. (평가 내용)</p> <p>다.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과 유치원의 사회문화적 맥락, 평가의 목적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방법)</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고시문 ‘4. 평가’에 명시된 밑줄 친 용어의 삭제 및 변경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p> <p>가. 누리과정 운영 평가</p> <p>(4) 운영 환경이 유아의 발달특성과 활동의 주제, 내용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p> </div>

	<p>(5) 계획안 분석,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한다.</p> <p>나. 유아 평가</p> <p>(1) 누리과정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p> <p>(2) 유아의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하여 평가한다.</p> <p>(3) 유아의 일상생활과 누리과정 활동 전반에 걸쳐 평가한다.</p>
--	------------------------------------------------------------------------------------------------------------------------------------------------------------------------------------------------

참고문헌

- 강현석(2005). 합리주의적 교육과정 체제에서 배제된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가능성과 교과목 개발의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23(2), 83-115.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a).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b).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 교육부(2015).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61호).
- 교육부(2015). 초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교육부(2017). 제4주기 유치원 평가 중앙연수.
- 교육부·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2016). 제2회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 심사 매뉴얼.
- 권낙원·추광재·박승렬(2006). 교육과정 실행 수준 결정 요인 탐색. *교육과정연구*, 24(3), 87-106.
- 김남희(2010). 유아교육평가의 구조적 문제 진단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탐색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9(4), 135-163.
- 김성훈(2008). Ted Aoki의 교사론 - 교사와 교육과정의 관계론. *인간연구*, 15, 236-255.
- 김은주(2017). 새시대의 영유아보육·교육과정 방안, 아이들의 건강·행복에 유익한 교육과정 운영. 새시대·새정부의 영유아보육과정, 어떻게 할 것인가?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혁신방안,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123-144. 광주: 광주대학교 호심관.
- 김재춘(2003).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방식 개선을 위한 제언에 관한 토론. *교육과정연구*, 21(3), 56-67.
- 김희연(2013). 유아교육에서의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7(2), 521-544.
- 김희연(2017). 영유아를 위한 교육, 보육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새정부에 바란다, 미래교육포럼, 한국어린이교육문화

- 비평학회,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자료집, pp.23-56, 서울: 서울시청 제 2별관.
- 김희연·정선아(2009). 2007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통합의 의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유아교육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 발표 자료, 1-12.
- 김희연·정선아·오문자(2012).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의 조직 체계와 운영 전략에 관한 비판적 검토: 유치원교육과정 개편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교육과정연구, 29(2), 69-98.
- 나정(2017). 영유아시기, 어떻게 볼 것인가. 영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새정부에 바란다, 미래교육포럼, 한국어린이교육문화비평학회,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자료집, pp.7-22, 서울: 서울시청 제 2별관.
- 문교부(1969). 1차 유치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 207 호).
- 박민정(2005). 포스트모더니즘 담론과 교육과정 논의의 쟁점. 교육과정연구, 23(4), 37-57.
- 박순경(1997). 교육과정 이론화의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후기 구조주의적 논의 -Cherryholmes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15(2), 233-250.
- 박은혜·신은수·조형숙(2012). 세계 유아교육동향에 비추어 본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편방향: 영국, 뉴질랜드, 미국 유아교육과정 비교를 기반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6(5), 487-514.
- 박창현(2017). 질높은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유아교사의 교육과정 정책우선순위 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6(4), 79-103.
- 박창현·김상림(2016). 유아의 기관이용시간이 언어,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 12(3), 197-210.
- 박창현·박찬옥(2012). 유아교육기관장의 운영능력, 유아교사의 역량, 교육과정 실행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6(3), 245-270.
- 박창현·양미선(2017).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인식 분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1(1), 209-237.
- 박창현·양미선·조혜주(2016).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운영 다양화 방안. 육아

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7). 제3차 어린이집평가인증 안내(통합지표).
- 부산광역시 교육청·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2017). 제4주기 2017년 유치원 평가 매뉴얼(유치원용).
- 심성보(1996). 교사교육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노동과정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 11, 51-74.
- 이경화(2014). 국가수준 영·유아교육기관평가의 평가지표에 대한 비판적 탐색. 한국교육, 41(2), 107-137.
- 이경화(2016). 3-5세 누리과정의 한계와 유아교육자의 과제. 생태유아교육연구, 15(4), 1-23.
- 이경화(2017). 현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공성에서 공동선으로의 전환. 생태유아교육연구, 16(1), 237-256.
- 이기숙(2013). 유아교육과정 (개정 5판). 서울 교문사.
- 이미화 등(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이진희(2006).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다양성과 깊이에 대한 탐색. 유아교육연구, 26(4), 261-282.
- 이진화·박창현·윤지연(2015). 「3-5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실태와 정책 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임부연(2015). 누리과정, 미학을 만나다. 서울: 양서원.
- 임재택(2017). 새시대 새정부의 영유아보육,교육과정 혁신, 획일화에서 다양화로. 새시대·새정부의 영유아보육과정, 어떻게 할 것인가?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혁신방안,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11-35. 광주: 광주대학교 호심관.
- 정선아(2004). 통합의 의미 탐색. 한국레지오교육협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49-74.
- 정선아(2012). 가상놀이의 즉흥성(improvisation)에 관한 연구: '궁전 놀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2(1), 417-443.
- 정선아(2014).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의 관점에 관한 연구: OECD 6개국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10(1), 147-164.

- 정선아(2016a). 통합의 시대를 향한 유아교육과정 방향. 한국유아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주제발표, 55-70. 부산: 동의대학교.
- 정선아(2016b). '어린이는 놀이로 세상을 배운다'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세계-내-존재"와 "세계-외-존재" 관점에서. 어린이교육비평, 6(1), 5-21.
- 정선아(2017a). 영유아기와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방안: '돌봄'과 '교육'의 통합 관점에서. 어린이교육비평, 7(2), 38-59.
- 정선아(2017b). 영유아를 위한 교사, 누가 어떤 교육을 받고 되어야 하는가. 영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새정부에 바란다, 미래교육포럼, 한국어린이교육문화비평학회,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자료집, pp.57-72. 서울: 서울시청 제 2별관.
- 정선아·김희연(2011).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의 개정 방향: 유치원의 고유성과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연구, 31(1), 289-307.
- 정지현(2011). 교육과정 자율화와 책무성 확보를 통한 유아교육 선진화 의미와 쟁점. 유아교육연구, 31(6), 285-307.
- 최연철(2007). 유아교육에서 '통합'의 의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3(3), 115-124.
- 한병철(2014). 투명사회 [Transparenzgesellschaft].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원전 2012년 출판)
- 허영주(2011). 교사 상상력의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9(1), 137-163.
- 홍성희·조은래(2017). 유아교사의 유아교육기관 평가에 대한 은유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687-705.
- Bakhtin, M. (2006). 말의 미학 [Estetika slovesnogo tvorchestva]. (김희숙, 박종소 공역). 서울: 도서출판 길. (원전 1976년 출판)
- Doll, W. (1997). 교육과정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 [A Post-Modern Perspective on Curriculum]. (김복영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전 1993년 출판)
- Dorr-Bremme, D.(1990). Contextualization cues in the classroom: Discourse

regulation and social control functions. *Language in Society*, 19(-), 379-402.

Foucault, M.(2012). 담론의 질서 [L'ordre du discours]. (이정우 역). 서울: 중원문화사. (원전 1970년 출판).

OECD(2011). OECD가 선정한 5가지 유아교육과정[Starting Strong Curricula and Pedagog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ive Curriculum Outline]. (나정, 임미령, 박창현 역). 경기: 공동체 (원전 2004년 출판).

OECD(2012). Quality Matt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New Zealand. Paris: OECD.

Pinar, W. (2013). 윌리엄 파이너와 교육과정이론 [Autobiography, Politics and Sexuality: Essays in Curriculum Theory]. (정정훈, 김영천 공역).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원전 1994년 출판).

Taguchi, H. L.(2010). Going beyond the theory/practice divid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Introducing an intra-active pedagogy. London: Routledge.

부 록

[부록 1] 전문가 포럼 주요 발제문과 종합 의견 요약표

[부록 2]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안)

[부록 1] 전문가 포럼 주요 발제문과 종합 의견 요약표

구분	누리과정의 성격 (임부연/2017.10.13.)	누리과정의 운영 (정선아/2017.10.24.)	누리과정의 평가 (이경화/2017.11.08.)
<p>문 제 진 단</p> <p>전 문 가 포 럼</p>	<p>1. 교육과정 성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문과 교사용지도서의 모호한 성격 <p>2. 교육과정 내용과 형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방법에 대한 검토 과정이 부족한 방대한 내용의 교사용지도서 <p>3. 교육과정 구성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내용영역, 활동유형, 흥미영역, 생활주제의 복잡한 관계 <p>4. 고시문 「총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구하는 인간상' 누락 - <편상> '시수' 와 놀이의 충돌 - <운영> '교육계획안'과 유아 흥미 및 요구의 충돌, '흥미영역'으로 인한 유아의 놀이공간의 교과화 - <교수·학습방법> '지식·기능·태도'와 교사 및 유아 놀이 역량 충돌 - <교수·학습방법> '능동적 상호작용'의 IRE 구조로의 의미 왜곡 <p>5. 고시문 「연령별 누리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내용을 성취목표로 인식 	<p>1. 통합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중심 활동 통합 방식 제시의 이론적 근거 부족 - 통합대상 애매성 - 생활주제를 지식으로 의미 왜곡 <p>2. 놀이중심 편성, 놀이중심 교수·학습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의 의미와 가치 왜곡 - 놀이를 교수·학습활동으로 간주 - 유아의 삶을 공부와 놀이로 분리 <p>3. 계획안 중심 교육과정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운영의 필수요건이 된 계획안 - 계획안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유아 경험의 동질화 <p>4. 1일 4.5시간 운영의 모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 시수 개념의 부적절한 적용 - 수업시수 개념 작동으로 인한 자유놀이의 가치 절하 	<p>1. 유아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유치원, 교육과정 자율권이 소외된 기관 감독 및 규제를 위한 평가로의 목적 왜곡 - 평가 준비에 소진된 교사 양산 -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평가 <p>2. 유아교육과정을 획일화 시키는 평가 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중심, 교수중심 지향 - 계획안 중심 교육과정 강요 - 고시문의 <편상과 운영>, 「교사용지도서」의 용어를 교육과정 조건으로 강제 <p>3. 객관화, 기계화된 외부자 중심 평가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항목, 지표, 영역의 과잉구조화 - 단일 지표체계에 의한 다양한 실제 평가 - 다단계 연산논리에 의한 기관 등급화 - 유명무실한 자체 평가 - 문서중심 평가

구분	누리과정의 성격 (임부연/2017.10.13.) 1. 고시문의 성격 - 「총론」에 법적 문서로서의 위상 명시 2.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격 - 불이중심 교육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내용 제시 3. <구성방향>의 내용 정비 4. '목적' - 현대사회의 성찰적 가치 반영 목적 설정 및 미래지향적 인간상 제시 5. <평성과 운영> - 주제, 지식, 기술, 태도, 흥미영역 등 높이를 규범화 할 수 있는 용어 삭제 6. 누리과정 세부내용 축소 7. 생활주제 축소 8. 구성체계 정비 - 활동과 주제를 교과화하거나 영역을 교과하는 형식의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전환 9. 교육계획안 작성 단순화 - 통합일과 운영 10. 불이중심 교육과정의 의미 명료화 - '즐거움'을 평가요소에 반영 11. 스토리텔링/내러티브중심 교육과정 도입	누리과정의 운영 (정선아/2017.10.24.) 1. 불이중심 통합교육과정 명시 - 통합 교육과정의 성격을 유지하되, 지나치게 상세하거나 모호한 진술 삭제 2. 불이중심 교육과정의 적시 - 교수·학습활동으로 전락된 놀이의 의미 복구(예. 자유놀이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자율적 자유놀이 운영을 명시 3. 기관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 적시 - 기관의 철학 반영, 자유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원칙으로 명시 4. 상호작용의 의미 명료화 - 교수학습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닌, 유아-유아/유아-환경/유아-성인간 진정한 상호작용에 대해 기술 5.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적시 - <평성>에 유아의 권리(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존중을 명시	누리과정의 평가 (이경화/2017.11.08.) 1. 유아를 존중하는 평가 - 유아교육의 본질(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추구)을 구현하는 평가로 패러다임 전환 - 단위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성격으로의 전환 2. 유아교육과정의 다양화를 보장하는 평가 - 단위 유치원의 교육과정 철학과 신념을 존중하는 평가 - 단위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전제하는 평가 3. 단위 유치원이 주체가 되는 간주간직 평가 - 교육과정 다양성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환경' 영역 지표의 변경 및 축소 - 지표체계의 다양화 및 지표 선택권 보장 - 유치원 자체 평가의 실질적 권한 보장 및 외부자 평가 권한의 최소화 - 증빙문서의 최소화
개 신 방 향			

구분	<p>누리과정의 성격 (임부연/2017.10.13.)</p> <p>김광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사적 영역 구분 재고 요망 - 획일화된 누리과정이 교수방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 구성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요망 	<p>누리과정의 운영 (정선아/2017.10.24.)</p> <p>김광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시간 전체를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 요망 	<p>누리과정의 평가 (이경화/2017.11.08.)</p> <p>김광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평가준비로 인한 업무 가중과 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장평가를 서면평가로 전환하는 방안 고 려 해야 함 - 평가 투입 인력 및 재정을 교육의 질 향상으 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p>토론자 ※ 의견</p> <p>전문가 포럼</p>	<p>신영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연수로 인한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부족함 - 고시문, 지도서, 해설서, 지침서의 위상이 불명확함 - 연령별 내용의 위계성 부족함 - 내용체계의 과잉 세분화로 인해 유아 활동을 제한하게 됨 - 교육계획안 중심의 구조화된 교육을 하게 됨 - 2015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반영하여 개정 필요함 - 연령별 위계 및 초등과의 연계가 필요함 - 교육계획안을 최소화 해야 함 	<p>김혜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 -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시 교사의 업무(놀이 기록 및 평가)의 과중화를 고려해야 함 - 놀이 등에 대한 전문적 연수 기회 부족함 - 놀이를 위한 실내·외 환경 제공의 문제가 고려 되어야 함 	<p>김혜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함 - 현실성 없는 평가지표와 항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함 - 교육과정 영역 지표에 대한 재고 요망(교사-유아상호작용 지표는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어야 함)

구분	<p>누리과정의 성격 (임부연/2017.10.13.)</p> <p>이수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식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비대화 과정에 공감함 - 하향평준화된 획일화된 교육과정 조장하고 있음 - 계획안의 과도한 작성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저해함 - 교육과정 명료화가 필요함 -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기보다 활동원리 등 기본적 내용 제시가 필요함 - 교육철학을 갖춘 원장 양성이 필요함 	<p>누리과정의 운영 (정선아/2017.10.24.)</p> <p>신영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중심에 대한 학부모, 지역사회, 유치원운영자, 학습자 간 상이한 관점과 이해가 존재하므로,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함 - 놀이중심 교육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음 - 놀이중심 교육을 위한 물리적, 인적 환경의 편차가 크므로, 지원이 필요함 - 놀이중심 교육을 위해 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지원체계가 고려되어 행정업무를 경감해야 함 - 방과후과정의 인적 지원 및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 기회가 부족하므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p>누리과정의 평가 (이경화/2017.11.08.)</p> <p>신영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평가의 성격에 맞지 않는 획일화되고 구조화된 평가지표와 내용이 있음 - 현장평가 준비로 인한 교육과정 손실이 나타남 - 평가가 가지는 긍정적 측면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음(공립의 경우, 지표정도의 기회 정도로 여감) - 최소한의 평가기준만 제시하여 유치원의 자율적 운영과 다양성에 침해 주지 않도록 해야 함 - 증거 만들비용 자료정리가 아닌 교육과정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평가결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실질적 개선에 도움을 줌 - 자체평가를 통해 기관별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p>이수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업무의 부담이 기증되어 '수업의 질 개선'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함 -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개별 유치원 특성이 무시되므로, 평가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개별 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
----	-------------------------------------------------------------------------------------------------------------------------------------------------------------------------------------------------------------------------------------------------------------------------------------------------------------------	---------------------------------------------------------------------------------------------------------------------------------------------------------------------------------------------------------------------------------------------------------------------------------------------------------------------------------------------------------------------------------------------------------------------------------------	----------------------------------------------------------------------------------------------------------------------------------------------------------------------------------------------------------------------------------------------------------------------------------------------------------------------------------------------------------------------------------------------------------------------------------------------------------------------------------------------------------------------------------------------------------------------------------------------------------------------------------------------------------------

구분	누리과정의 성격 (임부연/2017.10.13.)	누리과정의 운영 (정선아/2017.10.24.)	누리과정의 평가 (이경화/2017.1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후 지속성이 부족하여 평가 자체도만 그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보 공유를 통해 기관들이 상생하는 방안 모색해야 함 - 평가위원의 부족한 자질로 인하여 현장 평가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에 대해 문제 제기됨. - 평가에 대한 심층적 연수와 평가 준비과정의 지원이 필요함 - 현장평가 전 지구별 장학 등의 형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컨설팅 성격으로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를 통한 지속적 개선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중복지류의 축소가 필요함 <p>주혜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평가, 개별 기관이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가가 필요함 - 개별 원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는 내용과 지표가 필요함
	<p>※ 김광숙(한국유치원총연합회_사업유치원 원장) / 김혜윤(공립유치원 교사) / 신영진(한국유치원공공립연합회_공립유치원 교사) / 이수연(사립유치원 교사) / 주혜은(어린이집 교사)</p>		

[부록 2]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안)

□ 개요

- 주제 : 누리과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목적) 기존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현장의 다양한 교육 방식을 존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유치원 특성에 맞는 자율적·창의적 누리과정 운영 가능

- 일시 : '17.12. 21.(목) 14:00~17: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서울 여의도 소재)
- 주최 / 후원 : 신동근 의원실 / 교육부
- 참석자 : 유아교육·보육관계자* 등 80여명 내외
* 유아교육·보육관련 학계 및 학부모, 교원, 관련단체 등 현장관계자

□ 세부일정(안) ※ 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3:30-14:00	30' ○ 참석자 사전등록 및 안내	
14:00-14:10	10' ○ 개회, 국민의례, 내빈 소개	
14:10-14:20	10' ○ 개회사 및 축사 ○ 귀빈 축사	
주제 발표		
14:20-15:20	60' ○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성격에 부응하는 누리과정 개선 방안> -1주제(누리과정의 성격):임부연(부산대학교 교수) -2주제(누리과정의 운영):정선아(숙명여자대학교교수) - 3주제(누리과정의 평가):이경화(부경대학교 교수)	사회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책임연구자)
15:20-15:30	15' ○ 휴식	
패널 토론		
15:30-16:30	60' 좌장 : 나정(동국대학교 교수) - 신영진(경기 한산초병설유치원 교사) - 김광숙(경남 아림유치원 원장) - 조성실(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주혜은(성북 생명숲 어린이집 원장) - 김영희(안산교육지원청 장학사) - 김윤미(시연유치원 원감) - 양선아(한계레신문 기자) - 이정옥(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부속유치원장겸임)	
16:30-17:00	30' ○ 종합 토론 및 정리 / 폐회	좌장 / 사회자

연구보고 2017-18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 성격에 부응하는
누리과정 운영 개선 방안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빌딩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31-2 9337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ChildCare *and* *Institute of*
Educ *on*



9 791187 952312

ISBN 979-11-87952-31-2